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이 강 혁
편 집 인 겸 주 간 강 덕 수
편 집 장 박 재 철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4389
인 쇄 인 김 상 영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08호 1993년 8월 24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대중적·현실적 내용이 담보된 93범대회

민의 의지에 정부 동참으로 통일의 길 열어야

노동자·농민·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 두드러져

8월 13일 (금) 9시 한양대 노천극장에는 2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어깨가 붙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진 흥겨운 분위기였지만 약간의 초조함과 긴급줄이 뒤섞여 있었다. 곳곳에서 '오늘 범민족대회(범대회)를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연세대에 언제 들어가지?" 하는 물음들이 나왔다. 11시경 그 초조함은 집작스럽게 한대를 진동시키는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무대에 제 4차 범민족대회 대회장을 맡은 문익환 목사를 앞세우고 범추본 집행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범추본은 정부까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범대회를 진행하고자 끝까지 노력하였다. 12일날 문익환 목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띄워 '민과 관이 하나 되는 통일운동'을 이야기 하고 범대회 개막식을 하루 늦출수도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정부는 연세대에 2천이명의 전경들로 원천봉쇄하고 불허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 범추본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마지막 결정으로 대회장 이동을 결심한 것이었다.

밤 11시 부터 진행된 '범민족대회 불허 규탄대회 및 범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영삼정권, 잠 들어요. 민의 통일운동 막을 엄두도 내지 말어. 통일에 있어 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 남북이 통일하겠다고 도장 찍는 일 대통령이 하지 내가 하는거 아니거든. 그 일을 통일을 위해 가장 큰 일을 한 우리 민들이 하지 않는다 하여 아부도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하려는 민을 때려부수는 것 그만하고 함께 통일의 길을 가자고."

범대회는 그간 통일운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민들며, 또 자신의 지역에서 통일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업들은 8월 14일 범대회 개막식에 1만 5천여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참석하는 성과를 낳았다. 개막식이 끝난 15일 세벽 1시 부터 5시 까지는 노동자, 농민, 교직원, 청년단체,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각각 모여 그들의 심정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통일행사를 진행시켰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체 행사에서는 '아시아 청년 평화 포럼'에 참가했던 최한조 서강대 총학생회장이 행사보고와 함께 북측 청년학생들을 만나서 느낀점인 "만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 선전을 하고 연세대에서 폐막식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었다. 학생들은 서울역, 대학로 등지에서 선전을 한 다음 4시경 이화여대 앞에서 모여 연세대로 뛰기 시작했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학생들과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날 한양대에서는 남·북·해외에서 동시·분산적으로 열리는 범민족회의가 진행되어 4차 범민족대회 의제인 남북한의서 실천과 평화정착, 일본의 신군국주의 저지대책, 통일방안 합의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관련기사 5, 6면>

범대회 불허 방침을 내렸던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한달 보름동안 범민족대회를 준비해왔던 연세대 학생들에 대한 의리로 연세대에 들어왔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누군가가 "지금 남총련, 부경총련 학우들이 화장지와 담배와 물이 부족하여 전경들을 뚫지 못하고 있답니다." 라고 소리치자 수없이 많은 화장지, 담배, 물병이 노천극장 스탠드에서 밖으로 던져졌다.

마지막 정리집회에서 4차 범민족대회 평가를 본교 한영(인문·언어 4)씨는 다음과 같이 했다. "어느해 보다 대중적으로 치루어졌고, 단지 구호로써가 아니라 현실적인 내용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통일운동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통일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정지혜 기자>

고문수사 왜곡보도 제2의 강기훈 만들기

비대위, 배병성군 무죄입증을 위한 끊임 없는 방중활동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본교생 배병성(사회·경영4) 군이 북수공부직업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다.

배군이 구속되자 김순경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배군무죄석방을 위한 본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한 한총련대책위는 이번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군의 무죄석방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사건경위와 경찰의 수사

지난 6월 12일 관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청년학생 지매결연 예비회담'이 정부의 원천봉쇄 조치로 불가능해지자 연신내 에서 한총련 소속3천여명의 학생들이 거리시위를 벌이는 도중 이를 진압하던 경관 김춘도 순경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날 김효은 경찰청장은 "학생시위대에 의해 집단구타 당해 사망한 것"으로 규정짓고 "첨가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력집단을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그후 경찰은 탐문수사에 의존, 사건 담일 연신내 근처 빌원에서 머리창처를 치료한 호서대 송영백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그러나 수배 일주일만에 송영백군에 대해서는 호지부지 수사를 중단하고 농촌활동을 수행중이던 본교 용인젠퍼스 송호수(동학·중국어4) 군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을 불법연행했다가 풀어주는 등 수사상의 큰 혼선을 거듭했다.

이과정에서 경찰은 사건당일 시위를 지휘한 배군을 강룡 고학점에서 연행, 지명을 받고 김순경 사건의 수사를 골바로 종결지었다.

한총련과 비대위의 내용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월13일 한총련은 '고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한총련 사수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홍익대 총학생회장)를 꾸리고 김순경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체 조사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6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혼듬리는 수사과정과 언론의 보도태도에 지체조사를 바탕으로 짝맞추기식 수사의 중단과 공개적인 진상조사, 언론의 왜곡보도중지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대책위의 활동은 배군의 연행·구속으로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배병성학우 무죄석방과 불법. 고문수사 근절을 위한 애국외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덕원 총학생회장)가 구성되자 비대위를 중심으로 그 활동의 중심이 이전됐다.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배포한 선전물을 통해 "경찰의 수사는 불법강금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배군의 진술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경찰의 수사과정과 내용에 대해 △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반복된점 △국립묘지로 안장하기로 된 김순경의 사체가 조직검사도 끝마치지않고 화장터로 간점 △경찰이 주장하는 폭력시위라는 물증이 없다는 점 △물증에 있어서 배군의 지뢰외에는 입체의 증거물이 없다는 점 등을 의혹점으로 제기했다.

지뢰외에 어떠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배군의 자백은 번호인 접견진술과 비대위에 따르면 머리를 뒤로 젖힌 채로 구타를 당하는 등 고문수사와 허위자백 강요로 인한것이라고 한다. 경찰이 배군의 자취방에서 나온 쪽지를 근거로 배군과 친구들을 국가보안법위반과 조직사건으로 구속시키겠다고 지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 고문수사가 밝혀지자 배군의 어버지 배명석씨는 서울 시경소속 경찰관 4인을 불법 연행, 감금, 구타 등의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제2의 강기훈 사건

이번 사건은 지난 91년 강기훈유서 대필사건과 배우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91년 당시 강경대군이 경찰의 쇠파이프에 타살된 후 전국민적으로 6공정권에 대한 반대시위가 확산되자 검찰은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가 대필됐다고 발표하여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사건은 노태우정권이 전국민적인 저항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당시 본교생들의 6.3사건과함께 그당시 정국을 전환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용됐다.

김순경사망 사건이 제2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처럼 미화된지 9월초 배군의 구형공판 결과가 주목 된다.

<이현재 기자>

빈의자

동반자의 길

▲매년 칠월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눈물겨운 만남의 날이다. 3백65일중 오직 하루 이루어지는 만남. 그날,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을 맺어주기 위해 수많은 까치와 까마귀들이 다리를 놓는다. 그것이 오작교이다.

그러나 지금 1993년,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다.

7천만 겨레가 '통일의 까치'되는 통일오작교가 잠초(?) 들의 방해공작을 받았던 것이다.

▲지난 14일(토) 원천봉쇄와 장소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에서 제4차 범민족대회가 열렸다.

"북한의 배후조종에 의해 열리는 행사"로 규정한 정부는 1만2천여명의 병력으로 '빤깽이'(?) 들의 집회를 막았다. 주최측은 비록 정부로부터 합법성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북한과의 사전접촉은 미리 포기하는 등 정부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해 '평화적으로'대회를 치렀다. 또한 통일에 있어 '민'과 '관'은 서로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호모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이번 범민족 대회 하기 여부에 대해 내심 기대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일간지는 '범민족대회'와 기독교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남북한 인간띠잇기 대회'를 각각 대남 적화야욕에 불타는 '북한 추종자'와 '순진한 남만과'의 위험한 불장난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정부또한 두 행사를 대비시켜 인간띠잇기는 허가하고 범민족대회를 불허하는 형평성 잃은 모습을 보였다.

▲어느 한쪽은 막고 어느 한쪽 행사는 지원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이간시키는 분열행위이다. 동시에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종교인들의 순수한 열정인 '남북한 인간띠잇기'를 범민족 대회에 대한 탄압 정당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비유리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일장구의 독립은 민족문제가 정권에 의해 정권안보, 정권유지용으로 이용당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간 통일운동의 창구는 모두 열려야 한다. 범민족 대회는 '민'과 '관'의 통일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사이가 좋지않아 항상 대립하는 두 마음이 이질들끼리 악수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마음이 합동찬치를 벌여 마음사람들 모두가 만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아직 그리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김영삼대통령은 민간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범민족대회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대통령'으로 우뚝 서서 대회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옥선>

1992년 회계년도 결산공고

학교회계 자금 운용 계산서

(1992년 3월 1일~1993년 2월 28일)

교비 회계 및 기성회비 회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Ⅰ. 당기자금수입	33,989,351	Ⅰ. 당기자금지출	34,651,913
1. 납입금	(29,539,022)	1. 인건비	(19,489,701)
(1) 입학금	932,590	2. 관리운영비	(2,288,400)
(2) 수업료	18,296,457	(1) 여비	65,109
(3) 기성회비	10,309,975	(2) 수용비	958,179
2. 수수료	(514,226)	(3) 피복급량비	8,175
(1) 입학원서대	29,995	(4) 제세공과금	184,717
(2) 수험료	368,036	(5) 부담금비	259,665
(3) 졸업료	107,607	(6) 시설유지비	671,738
(4) 사용료	8,588	(7) 교육훈련비	28,593
3. 전입금 및 기부 원조금	(2,287,071)	(8) 행사비	112,224
(1) 학교 운영비 전입금	1,125,679	3. 학생경비	(5,417,694)
(2) 지정 시설비 전입금	170,926	(1) 실험실습비	243,857
(3) 특정 기부금	805,179	(2) 장학금(교외)	378,452
(4) 국고보조금	185,287	(3) 학비감면(교내)	3,102,574
4. 기타수입	(890,378)	(4) 보건시설전비	53,795
(1) 예금이자수입	783,667	(5) 신문방송비	183,540
(2) 유가증권 매각 손익	61	(6) 학생지도비	362,098
(3) 잡수입	106,650	(7) 기타 경비	1,093,378
5. 유가증권매각대	(330)	4. 입시관리비	(455,982)
6. 고정부채입금	(703,500)	5. 연구비	(894,494)
(1) 장기차입금	700,000	6. 시설이자	(403,141)
(2) 임대보증금	3,500	7. 유형고정자산 매입 지출	(3,856,369)
7. 직원예금인출	(54,824)	(1) 기계기구매입비	440,350
		(2) 비품 및 집기 매입비	157,915
		(3) 차량매입비	232,799
		(4) 도서구입비	450,008
		(5) 건설가계정	2,575,297
		8. 무형고정자산 취득비	(13,471)
		9. 고정부채상환	(1,541,780)
		(1) 장기차입금	1,495,200
		(2) 교육시설상환	49,580
		10. 직원예금지출	(290,881)
		(1) 학생시설직원예금지출	73,925
		(2) 직원교육직원예금지출	216,956
Ⅱ. 자금수입조정	17,862,755	Ⅱ. 자금지출조정	17,200,193
1. 유동자산감소	(3,495,561)	1. 유동자산증가	(3,819,938)
(1) 지급금회수	3,495,561	(1) 선급금	164,557
2. 유동부채증가	(6,887,736)	가. 당기말선급금	324,447
(1) 예수금	954,023	나. 전기말 선급금잔액	▲159,890
(2) 선수금	4,345,029	(2) 가지급금	3,655,381
가. 당기말선수금	14,205,038	2. 유동부채감소	(2,502,420)
나. 전기말선수금잔액	▲9,861,009	(1) 예수금지출	949,186
(3) 가수금	1,588,684	(2) 가수금환급	1,553,242
3. 전기이월운영자금	(7,479,458)	3. 차기이월운영자금	(10,877,827)
합계	51,852,106	합계	51,852,106

법인 회계 및 학교회계 회계 (단위 : 천원)

자산	법인	학교	계	부채	법인	학교	계
Ⅰ. 유동자산	506,457	11,548,315	12,054,772	Ⅰ. 유동부채	648,160	14,290,929	14,939,089
1. 현금기예금	316,564	10,877,827	11,194,391	1. 예수금	626,492	9,111	635,603
2. 유가증권	89,461	195	89,656	2. 선수금	21,668	14,206,038	14,227,706
3. 미수금	11,712	—	11,712	2. 가수금		75,780	75,780
4. 선급금	53,404	324,447	377,851	Ⅱ. 고정부채	3,630,263	3,728,545	7,358,808
5. 가지급금	35,316	345,566	380,882	1. 장기차입금	397,900	3,420,596	3,818,496
6. 금융공및예금	—	280	280	2. 치관		299,959	299,959
Ⅱ. 투자및기타자산	37,756,815	2,057,364	39,814,179	3. 임대보증금	3,232,363	8,000	3,240,363
1. 출자금	2,196,500	—	2,196,500	부채계(Ⅰ+Ⅱ)	4,278,423	18,019,474	22,297,897
2. 설치학교	33,867,556	—	33,867,556	Ⅰ. 기본금	37,924,247	48,662,400	86,586,647
3. 직원교육적립예금		1,495,376	1,495,376	1. 설립자기본금	4,311,025		4,311,025
4. 기타직원예금	1,692,559	561,988	2,254,547	2. 기타기본금	33,613,222	14,794,844	48,408,066
5. 임차보증금	200		200	3. 법인		33,867,556	33,867,556
Ⅲ. 고정자산	5,948,521	52,501,739	58,450,260	Ⅱ. 적립금	2,008,377	2,057,364	4,065,741
1. 토지	2,070,895	4,975,030	7,045,925	1. 특별사업적립금	1,692,559	561,988	2,254,547
2. 건물	3,852,474	25,238,605	29,091,139	2. 임차적립금	315,818		315,818
3. 구축물		4,638,972	4,638,972	3. 직원교육적립금		1,495,376	1,495,376
4. 기계기구		3,850,989	3,850,989	Ⅲ. 임여금	746	▲2,631,820	▲2,631,074
5. 비품및집기	20,113	2,179,879	2,199,992	1. 이월이익잉여금	244	▲1,969,257	▲1,969,013
6. 차입		650,415	650,415	(미일운영수지 차액포함)			
7. 도서		3,382,445	3,382,445				
8. 박물관유물		4,513,885	4,513,885	2. 당기순이익	502	▲662,563	▲662,061
9. 건설가계정	3,200	2,986,930	2,990,130	기본금계	39,933,370	49,087,944	88,021,314
10. 무형고정자산	1,833	84,620	86,459	(Ⅰ+Ⅱ+Ⅲ)			
자산총계	44,211,793	66,107,418	110,319,211	부채및기본금총계	44,211,793	66,107,418	110,319,2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3. 7.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 숙 경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 장 이 강 혁

<감사의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1992회계년도 결산을 감사한 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재무상태와 학교회계(기성회회계포함)의 자금운용 내용이 기업회계기준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공인회계사 제564호) 이 종 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서 정 의

1993 회계년도 예산공고

학교회계 자금운용 예산서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

교비 회계 및 기성회비 회계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1. 당기자금수입	39,428,331	1. 당기자금지출	42,468,783
1. 납입금	(34,648,531)	1. 인건비	(22,635,677)
(1) 입학금	1,133,100	2. 관리운영비	(3,419,200)
(2) 수업료	21,441,998	(1) 여비	73,400
(3) 기성회비	12,073,433	(2) 수용비	1,164,600
2. 수수료	(537,000)	(3) 피복급량비	17,000
(1) 입학원서대	33,000	(4) 제세공과금	183,500
(2) 수험료	396,000	(5) 부담금비	156,500
(3) 졸업료	100,000	(6) 시설유지비	1,640,200
(4) 사용료	8,000	(7) 교육훈련비	104,000
3. 전입금 및 기부원조금	(3,300,000)	(8) 행사비	80,000
(1) 학교운영비 전입금	1,300,000	3. 학생경비	5,754,853
(2) 지정 시설비 전입금	700,000	(1) 실험실습비	290,000
(3) 특정기부금	1,100,000	(2) 장학금(교외)	400,000
(4) 국고보조금	200,000	(3) 학비감면(교내)	3,456,853
4. 기타수입	(890,000)	(4) 보건시설전비	62,000
(1) 예금이자수입	800,000	(5) 신문방송비	248,000
(2) 유가증권 매각 손익		(6) 학생지도비	320,000
(3) 잡수입	90,000	(7) 기타경비	978,000
5. 유가증권매각대	—	4. 입시관리비	(429,000)
6. 고정부채입금	—	5. 연구비	(900,000)
(1) 장기차입금	—	6. 시설이자	(281,103)
(2) 임대보증금	—	7.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5,213,000)
7. 직원예금인출	(52,800)	(1) 기계기구매입비	601,500
		(2) 비품및집기매입비	170,000
		(3) 차량매입비	261,500
		(4) 도서구입비	520,000
		(5) 건설가계정	3,600,000
		8. 무형고정자산취득비	
		9. 고정부채상환	(951,330)
		(1) 장기차입금	892,710
		(2) 교육시설상환	58,620
		10. 직원예금지출	(252,800)
		(1) 학생시설직원예금지출	52,800
		(2) 직원교육직원예금지출	200,000
		11. 전기이월운영자금	(2,631,820)

사 설

통일, 더 미룰 수 없다

조국이 갈라진지 48년, 아직도 우리 민족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조국 안에서 오손도손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억지로 허리가 잘리고 통일이 정권유지의 안보용으로 오도되면서 하나가 되기위한 민족의 몸부림은 무참히 짓밟혔다. 이렇게 민족의 감정이 억눌린 시기에 민족을 최우선시 하겠다며 들어선 문민정부는 이인모씨 송환 등 어느 정도의 통일의지를 보여줘 민족의 기대를 고양시켰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빌미로 민족의 통일열망을 가로막고 과거 군사정권이 사용하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며 창구단일화를 고집하고 있다.

통일은 어느 특정 계급계층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게 아니다. 모든 계급과 계층을 망라한 전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세기동안 깊들여진 서로의 체제에 대해 하나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고 함께 인정할 때만이 통일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통일은 더이상 당국자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정부당국자 간에 감격스런 합의로 통일이 된 독일의 폐해를 보면 특정 계급계층에 의해 주도된 통일이 낳는 문제점을 인지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현 정부가 주장하는 창구단일화 논리는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요구를 묵살하는 반통일적 주장인 것이다.

더이상 통일논의를 정부당국에 맡긴 채 미룰 수는 없다. 90년대 통일만이 민족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제국주의의 외세문화가 판을 치며 한반도가 미제의 전쟁놀이터로 둔갑하는 등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 시기에 조국의 통일은 민족 절대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현 시기는 민족의 운명을 쥐지우지하는 시기이다. 즉 우리 민족은 고통과 굴욕의 시대를 끝내고 자주적 민족번영의 시기를 도래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 민족이 조국통일의 앞에 서야한다. 통일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때문이다.

쭉정이 없는 알짜 개혁을

지난 12일 긴급명령의 형태로 금융실명제가 단행되었고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체 금융자산 중 비실명 자산 25%, 전체 통화량 중 지하경제 10-30%, 성장위주의 무리한 경제정책—이러한 경제현실에서 단행된 정부의 과감한 궤도수정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절실히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개혁세력들에게 우리는 진정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종합과세 실시를 95년 이후로 미룬 점, 차명계좌 금지법이 없는 점 등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에겐 이것 또한 곧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필요이상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현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문익환 목사가 "정부를 믿어줘야돼. 보수수구파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개혁적 의지를 가진 이들이 실아남을 수 있도록 믿어주자고." 라고 주장 할 때만 해도 대선의 패배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삼당야합 등으로 보여준 김영삼씨의 민주성에 상당부분 부정적이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노동, 농업, 통일 등 제분야에서 이전의 군사독재 정권과 별반 다름없거나 더욱 악화된 요소들도 적잖게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인모씨 송환, 일시적이고 겉핥기식이었지만 단행된 사정작업,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개혁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 속에 정부내 보수수구파와 상대적 개혁파의 갈등이 내재해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모습속에서 우리는 '정부를 믿어주자'라는 말을 다시 확인한다. 개혁의지가 의심없이 확실한 4천만 민중의 여론을 모아 정부내 개혁파를 이끌어 내고 보수수구파들을 제거해 내어야 할 때다.

흡산의 소리

짧지만 깊은 이야기

글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진정으로 우러나오게 됩니다.
외대인이 함께 공감하고픈 이야기를 짧게나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참다운 목소리를 외대학보는 귀기울입니다. 한번 펜을 들고 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외대학보 '흡산의 소리'의 진정한 주인인것을 잊지마세요.

외대인과 함께 할 때 승리는 기약된다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수배생활이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만감에 싸이곤 한다. 몇까니씩을 굶어가면서 불안으로 보내야 했던 날들, 외로움을 눈물로 이기며 리면곡물에 소주잔을 기울였던 2년의 많은 날들, 학교에 남겨놓고 떠나온 다정한 벗들을 생각하며 그 긴 시간을 참았다. 지기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도지히 부인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문민정부라는 시대에서도 '창살없는 감옥'이라는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김영삼정권의 출범은 많은 수배자들에게 있어서나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일정한 기대를 유발시켰다. 나 또한 김영삼씨의 과거행적에 비춰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93년 3월에 학교로 돌아와 복학을 했었고, 더불어 3.6사면조치로 그동안 감옥에서 고통받던 6.3정원식 국무총리 서리 항의시위 사건관련 동지들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그 학우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물을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 27일 '지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왔다. 처음에는 지진출두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자신이 싫어졌다.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김영삼정부에 대한 기대는 허상이었다. 수배나 양심수나 하는 말들은 과거 군사정권이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비롯된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많은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과거 우리정치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에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조치이며 또한 수배자들의 지랑이요, 힘의 원천인 양심과 지조를 파괴하는 양심파괴 조치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이 신한국이고 문민이였구나! 김영삼정부의 본질이 이렇게도 폭압적인데 내가 기대를 걸었다니…

분노를 삼키며 새로운 모색을 해야만 했다. 수배를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전국 30여명의 수배자가 모여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수배자 대책위'를 결성했다. 이 단체에 외대인 4명이 포함되어 수배해제 서명운동, 엽서보내기 운동 등 수배해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많게는 5년 적게는 2년의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올해 큰바람이 있다면 그동안 가고팠던 고향에서 부모님과 추석을 보내는 것이다. 나 또한 수배기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승리해서 고향에 가고 싶다. 이 승리를 위해 모든 외대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권응상<동양·이란어3>

땀의 소중함을 깨우치자

— 농촌의 현실을 보며 —

개강을 앞두고 서울캠퍼스는 오늘도 변함없이 활기에 차 있다. 학교건물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들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벌써 개강이라니 참 시간도 잘 간다.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는 하지만 2학기 개강때문에 가슴이 설렌다. 처음으로 내게 주어진 2개월간의 대학에서 여름방학이 나름대로 후회가 되긴 하지만 정말 값지게 보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농촌활동을 한 셈이니까. 집이 시골이어서 방학 내내 고추도 따고 감자도 캐고 풀도 뽑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덥운데 까맣게 되어 버렸다. 방학을 즐겁게 보내 본다고 7월 초에 여행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일하면서 얻은 것이 여행에서 얻은 것 보다 더 소중했다고 여겨진다. 한번은 깨밭에서 따가운 여름 햇살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께서 "아이고, 이놈의 농사 이렇게 힘들여서 뭐하나? 기껏 1년 죽으라고 농사 져봤자 미장이가 3일 나가서 일해 돈번 것보다 못한데" 하시며 푸념을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일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힘든 농부들은 얼마나 힘들까'하는 생각에 또 수고한 만큼 소득이 없었을 때 느끼는 농부들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니 무척이나 화가 났다. 정말이지 비참한 농촌 현실을 느낀 순간이었다. 수고한 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세상, 땀 흘린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에겐 아직 거리가 먼 것일까?

그동안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그런 현실을 외면해 온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제 내게 주어질 2학기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겠다. 벌써부터 2학기가 기대된다. 새학기에는 더이상 새내기가 아닌 93학번으로 제자리에 우뚝 선 내가 되어야 하겠다. 방학동안 많이 성숙했을 우리 과 93학번들이 보고 싶다. 이제는 들뜨기만 해서 보냈던 1학기와는 달리 나의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성숙한 대학인으로 자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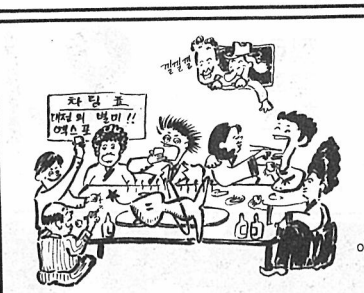
변지우<동양·아랍어1>

제 2기 모니터 요원 모집

외대학보사에서는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평가하고 각 과나 단대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학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학생회관 2층 기자실로 오세요.

<외대학보 여론부>

독자만평



이승찬<서양·서반아어2>

교통문제, 외대인이 함께 풀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통분서주했던, 하지만 마음만은 여유로 가득 찰 수 있었던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맞는 방학도 개강이 며칠 남지 않은 위치에 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나와는 별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온 터이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외대인의 자격으로 느꼈던 일들 가운데 평소 건의하고 싶었던 교내 통행차량 및 주차문제 등에 관해서 몇가지 적어볼까 한다.

근래 몇년 사이에 많은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교내 통행차량도 눈에 띌 정도로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교내 주차시설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등에 관한 학교측의 관심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것 같다. 승용차 통학을 하고 있는 나로써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내 도로여건 및 주차시설의 미비점이다.

교문부터 어문학관 진입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와 기숙사 및 도서관 진입로 등에는 대략 10개 미만의 파속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교내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높이가 조금 높고 경사각도가 완만하지 못해서 통과시 불편이 따르고 도서관 진입로 등에 있는 것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거나 많이 훼손되어서 특히 야간운행시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도로 지체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좋은편이지만 통학버스가 계속 통과하는 지연과 학대 앞 진입로에 버스가 지나가기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패여있던 부위가 몇달이 지난 후에야 복구되었던 일이 생각난다. 사실 교내에서 어문학관 우측에 거의 담장 정도만 표시되어 있는 조그만 주차장과 각 건물 여유공간에 주차선으로 표시해 놓은 곳 외에는 따로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위치의 특성상 차량통학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차량의 수를 감안할 때 대형 주차장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임시방편적인 방법이지만 어문학관 우측 경사로, 도서관 앞들등 상습 주차지역에는 주차선을 표시해서 보다 많은 차량이 정차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명수당 앞 도로변과 급경사로 등 주차시 사고위험이 따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는 주차를 지양하는 운전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 학생들을 지정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왕복 4차선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차선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을 동반한 추월이 있게되고 특히 커브길인 곳에서는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될까 걱정이 된다.

이러한 교통 사안에 대해 학교측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량 문제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대인 전체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승환<서학·유고어1>

백두에 올라, 통일조국의 모습을 보며 흘린 눈물로 조국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슬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뒤로 하고 한반도를 보며 외칠거야. '스포츠는 살아있다'라고. —스포츠 맨—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에 있는 물을 왕창 마실테야. —90—

백두산 천지에서 결혼식 올려야지. —NY—

평양외대와 교류를… —外人—

남남북녀라는데… 남한총각과 북한처녀의 합동결혼식을 기대하오. —노총각—

양코배기들을 한줄로 엮어서 모두 다 동해바다에 풍덩 /. —애국자—

백지 제자보

주제 : 통일이 되면 나는 이것만은 꼭…

다시 한번 옴림픽을 개최하자. 남북이 하나의 조국으로. —올삐미—

7천만의 지혜로 자주국가 건설합세.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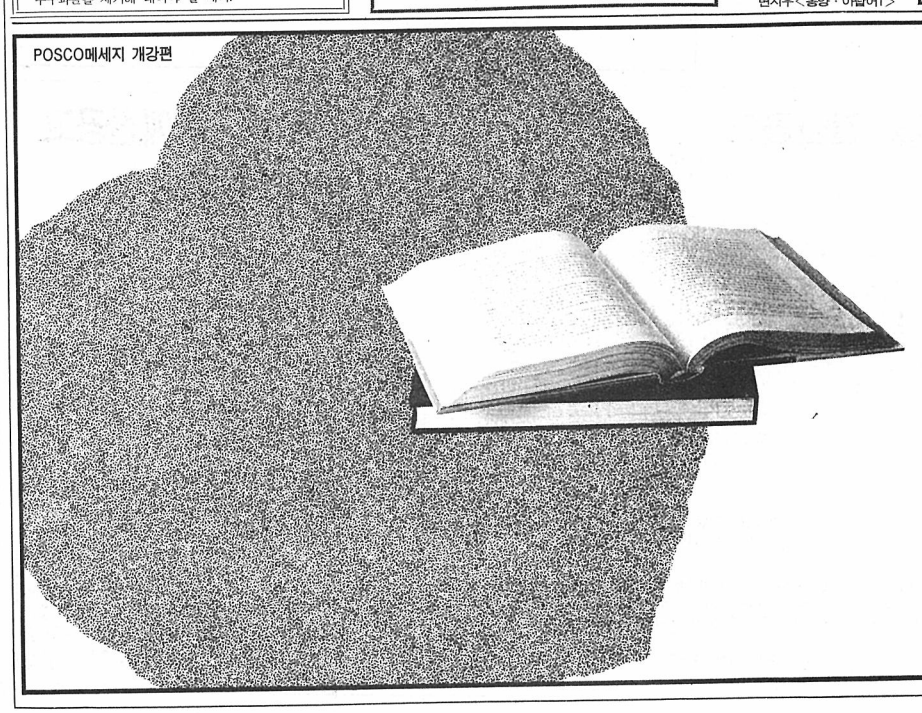
내 사랑 한반도를 힘차게 외치련다. —외·참—

통일이 되는 그날 비로소 마음놓고 공부하련다. —학사제적자—

반통일 세력 이제 주옥었다. —나파격—

남, 북, 해외동포가 모여 한반도 전역에서 범민족대회를… P.S : 쩜새도 환영.^ —범추본—

POSCO메세지 개강편



身冊不二

"학도와 책은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물의 영양분으로 성장하듯,
우리의 정신은 책을 통해서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방학동안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강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정신을 알차게 할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키워나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해 가는 귀중한 시간들 -
대학생활은 이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실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정신세계를 더욱 넓게 크게 만드는
책과의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포항제철은 제철보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켰고,
이제 통신보국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제철
POSCO

서울 총학 정·부회장, 방학맞아 징계·수배 당해

대학당국 학교 명예손상과 패덕행위로 처벌 마땅
학 생 측 재단의 학생회 와해 음모라고 주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간부들이 방학과 함께 정계, 수배를 남발함으로써 앞으로의 외대발전 운동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국은 방학기간이었던 지난 6월 25일(금)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총학생회장 이철훈(서양·영어4) 군을 무기정학에, 부총학생회장 한종권(상경·부역4) 군은 유기정학 1개월, 정책국장 서성준(동양·인도어4, 휴학) 군에게는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학당국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교직원에 대한 패덕행위'와 '학교명예 훼손'이었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실질적 내용은 지난 학기중에 있었던 교육부 항의방문과 한겨레신문에 총학생회 명의의 광고를 게재한 것, 그리고 박승춘 재단 전무이사 열쇠이 그려진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징계는 그 시기와 사유에 있어 몇가지 의문점을 낳고 있다. 먼저 대학당국이 밝힌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총학생회의 활동은 5월 이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징계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징계시기를 5월 중순에서 방학중인 6월말로 미룬 원인은 학생들이 간부들의 징계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1학기동안 재단전무이사 물신임 운동등 강력한 대재단 투쟁을 벌였다.

수배조치에 대한 의혹점도 크다. 이철훈 총학생회장, 한종권 부총학생회장, 백제길 문화국장 등 30명은 '한총련 출범식 폭력시위 주도'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다. 출범식 당시 몇 모습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처해진 수배조치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고 법의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즉 동총련 간부들에게도 내려지지 않은 수배가 본교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이철훈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대학당국이 학생회 간부들을 시국관련으로 구속시킨 일은 허다하다"며 "이번 조치도 대학당국의 명백한 학생회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폭력시위 주도와 관련하여 서양어대 학생회장 정중경(독일어4) 군과 정외과학대 학생회장 조민환(정외4) 군은 각각 6월 20일(금) 과 18일(금) 평택집과 지취방에서 연행·구속되었다. 그후 지난 8월 19일(목) 선고공판에서 2명 모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학생회 활동이 장시 일단락지어지는 방학직전에 벌어졌던 이러한 수배, 징계 조치들은 개강이후 큰 논란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재단과 총학생회측의 대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기자>

대생협, 어학연수 성황리 개최

행사지원 문제로 학생처와 마찰
부조합장 무기정학 처분

용인캠퍼스 대학생활협동조합(대생협)에서 주관하는 제5회 하계어학연수가 지난 7월 5일(월) 부터 8월 6일(금) 까지 5주간 용인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에게 지연속에서 면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 학생들까지 참여시켜 폭넓은 교육과 실용에 가능한 실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5회째 시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작년 2백 25명에 비해 68명이 늘어난 2백 93명이 전국 61개 대학에서 참여하였다.

어학연수기간 진행된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엔 듣기, 말하기 부문으로 나뉘 한국인 3명, 외국인 6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오후엔 작문·타임·리더스·영소설·영국사·미국사등 12개과목중 2과목을 선택하는 특강이 이루어졌다. 강사진과 함께 학생들은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어 보다 친근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생협 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국제인의 밤, 한여름밤 음악회, 세미나, 체육대회 등과의 행사여부에 따라 행사지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려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생협이 주관하는 하계 어학연수에 매년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학당국에서 대생협에 제시한 요구사항에는 연수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위친성수, 어학연수 예산산 공개, 인권대책 수립 시행 및 시행방안에 대한 학생처로 통보등이 있다. 이러한 과외행사가 펴치치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5회째 접어드는 올해 어학연수는 예년과는 달리, 대학당국이 대생협에 요구사항 한 요구사항에는 연수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위친성수, 어학연수 예산산 공개, 인권대책 수립 시행 및 시행방안에 대한 학생처로 통보등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생협 부조합장 김현국(동양·중국어3) 군은 "예년과 달리 올해 부리한 요구서 이행을 듣고 나오는 대학당국의 처사는 부당하다"며 이를 빌미로 학교측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학생처 김음수 주임은 "이전의 행사지원은 행정착오였으며, 요구사항의 이행이 거의 없었기에 학교측도 행사를 지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생협 부조합장 김현국군에게 지난 16일(월) 부로 무기정학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대생협과 학생처와의 마찰로 인하여 빚어진 학생처 기물파손이 그 징계사유이다. 이에대해 대생협 조합장 황영록(인문·서학 4, 휴학) 군은 "기물파손은 한 부조합장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어학연수를 위해 전국에서 용인캠퍼스를 찾아온 학생들이 공부할 경의심과 점지리인 기숙사의 문을 파괴하게 한 학생처의 부당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일"이라고말했다.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대학당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생협간의 싸움은 지난 1학기 같은 전통과 부관하지않으며, 2학기 또한 대학당국이 대생협에 거래중지 조치를 내려 문제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윤주상 기자>

양캠, 옥구·여주 지역서 여름 농촌활동

서울 농활학교 등 사전준비 활발 용인 농활수행 대원들 불법연행 돼

서울·용인캠퍼스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라북도 옥구군 9개면 23개마을과 경기도 여주군 3개면 15개마을에서 각각 '여름농촌활동'(농활)을 실시하고 농민·학생연대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캠퍼스는 5백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6월 30일(월) 부터 7월 9일(금) 까지 8박 9일동안 전북 옥구군에서 농활을 수행했다.

이번농활은 농활수행지역이 농활대를 처음받는 곳이라 예년보다 학생들의 사전준비가 절실히 요구된 해였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이 징계·수배된 상태에서 수행된 이번농활은 내부적으로는 학생회 강화, 외부적으로는 옥구군에 건설되지 않은 민농민회 건설을 목표로 5월 중순경 중앙농활 추진위원회(이하 농추위, 위원장 오순열 동아리연합회 회장)가 결성됐다. 농추위는 각과 각 단위 농활주체와 함께 1, 2차 전담사를 진행하고 6월 24일(목) 부터 6월 26일(토) 까지 농활교양학교를 열었다.

또한 교양지로로 '옥구미림'을 제작, 배포하여 농학연대의 틀속에서 농활의 의의를 선전하고 선농정의 허구성을 알려냈다.

이번 농활은 지난해에 비해 사전 준비작업이 잘 이뤄졌고 처음 수행되는 마을인민큼 근로작업에 치중했으며 앞으로 있을 농활의 준비기간이었다고 평가된다.

용인캠퍼스는 3백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3일(수) 부터 7월 1일(목) 까지 7박8일동안 북용라물과 논농사를 주로하는 여주군 일대에서 농활을 수행했다.

이번농활은 민족자주권의 근간인 '우리쌀 지키기'라는 목표 아래 봄농활 전인 3월에 농추위가 결성돼 농추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농활교비지금과 관련하여서는 대학당국과 농활대원간에 마찰이 빚어져 6월 22일부터 예정됐던 농활이 하루 늦춰지는 사태도 발생했다. 또 농활수행과정중 김충도순경사망사건과 관련, 최진홍(사회·부역 3) 군등 3명이 불법연행돼 농활대원들이 여주경찰서에 항의방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양캠퍼스 학생들은 농활에서 김매기, 비닐하우스 등의 직업을 통해 농촌의 삶과 현실을 배우는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농활은 양캠퍼스모두 공통적인 문제점이 대두됐다.

먼저 사전준비작업이 학생들만 모여 계획하고 교육함으로써 좁디 농촌현실에 맞는 농활준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농활이 단순히 때가오면 가는 연중행사가 아닌만큼 양캠퍼스 모두 이후 일상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후속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옥 기자>

본교총동문회, 신임회장으로강인섭동문선출

전 동문회장 김현욱 동우 "재단이사회에 동문출신 3명이상은 참가해야"

'1993년 한국외국어 대학교 총동문회 대의원 총회'에서 강인섭(불어·56) 동문이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6월 1일(화) 프리지아 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 18대와 제19대 신·구 회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운영이사회에서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추천된 강인섭동문을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 기립박수 선출방식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강인섭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외대인의 단결과 화합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상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사람을 19대 총동문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강인섭 신임회장은 현재 민자당 국회의원,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백8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1백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의원 총회를 마지막으로 총동문회장을 이임하는 제 18대 김현욱 회장은 자신의 퇴임사에서 자신의 3회에 걸친 총동문회장으로서의 사업내용을 스스로 평가했다.

"저는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장을 하면서 동문와 편찬에 힘을 쏟았으며, 또한 동창회 모든 업무를 전신화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조계·관계(官界)에 있는 동문을 하나로 묶는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신임회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외대인의 날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 18대 김현욱회장은 동문회와 재단과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지금 9명의 재단이사중 외대와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도 동문회장을 하면서 재단의 이사로 들어 있었지만, 새로이 회장단이 구성되면 제 19대회장님도 제2회 재단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동문이 3명까지 재단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재단이사에 대한 동문회의 참여를 호소했다.

제 19대 총동문회가 설립되면서 '제 19대 총동문회 제 1회 운영이사회의'가 '신임운영이사 선임보고를 위해 열렸다.

17일(화) 홍제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총동문회 운영이사회의에서는 '과별·지역별 동문회장, 백여명 이상 동우가 있는 직장·직능별 동문회장, 동문회 원로, 동문회에 애정이 있는 사람'등의 선임원칙으로 70여명의 운영이사가 선임되었다. 선임된 주요 운영이사를 살펴보면 개정이사에 이형기(영어. 60) 동문, 섭외이사에 고규찬(영어. 59) 동문, 총무이사에 최상수(독일어. 57) 동문이 있다.

사 령

임

편 집 장
박재철(서학·영어3)
논설위원
강인숙(동양·이란어4)
이상 2명 3월 23일자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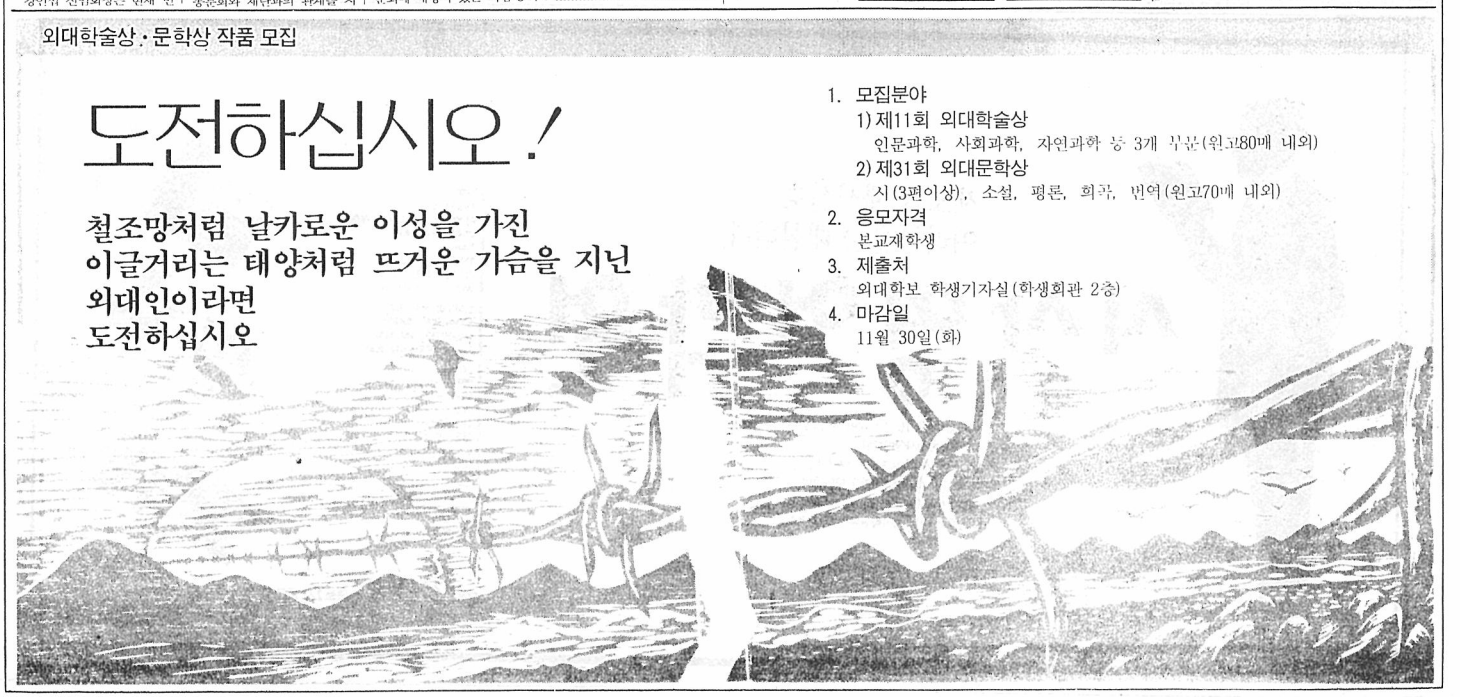
편 집 장
노제봉(서양·화란어3)
논설위원
황효순(사범·한교4)
이상 2명 임기만료로 사임

외대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도전하십시오!

철조망처럼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외대인이라면
도전하십시오

1. 모집분야
   1) 제11회 외대학술상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 부문(원고80매 내외)
   2) 제31회 외대문학상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원고70매 내외)
2. 응모자격
   본교재학생
3. 제출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4. 마감일
   11월 30일(화)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1. 여는 글

93 한반도 내외정세 속에서 본 남북통일

'통일은 우리의 소원인 주만은 없다'라는 노래가사는 어느덧 우리 가슴 설렘히 다가오고 있다. 이는 이전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더 잘 깨닫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외의 정세가 통일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갈성의 수위가 높아졌음이 높에 보이기 때문이다.

93년은 분명 통일운동의 새지평을 여는 시기임과 동시에 통일조국을 향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때다.

본보에서는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라는 주제로 5회에 걸쳐 글을 싣는다. 첫회는 여는 글로 현 한반도 대외적 정세를 통일을 중심으로 하여 짚어 보았고 다음호 부터는 정치 · 군사 · 경제 · 사회 등의 부문을 살펴보면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상해 본다. 많은 변수를 인정하면서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북측의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것이 바로, 통일조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조국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어지가 아닌 것이다. <편집자>

박 세 현
민족민주운동 연구소
연구원>

미 · 일의 이해관계와 각성된 통일의지, 통일호기 !!

변화된 국제정세와 김영삼 신외교노선

80년대말 이래, 그리고 90년대 들어 지속되어온 냉전질서의 해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정세 및 국제관계 전반을 김영삼정권의 외교 통일정책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외교통일정책은 무엇보다 80년대말 이래 계속되어온 냉전질서의 해체와 그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국제적 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그것은 국제적 역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고자 하는 정권측의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김영삼 정권은 냉전질서 속에서 군사기지로서 한국이 차지해온 비중이 퇴색됨과 동시에 국제관계 전반에서 군사적 관계의 비중이 저하되고 민족주의적인 기운이 높아지는 상황을 수용하는 한편, 앞서 보았듯 중속적 군사관계 가 지배해온 한미관계의 부분적 변화에 조응하여 정치외교적 대응력을 갖추고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전세계적 변화의 파장이 현시기 한반도 내에서도 긴장 완화와 민족화해의 기운을 높이고 있는 데 따라, 국내적으로도 김영삼 정권은 그러한 분위기를 정권의 주도하에 포섭해들이고 조정해가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김영삼 정권은 더이상 대중을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반공이데올로기대신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밖에 없으며, 내외의 조건에 조응하는 통치방식으로서 민족주의적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

그러한 김영삼 정권의 외교노선은 우선 미국과의 조율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냉전질서의 해체 속에서도 여전히 물적, 물리적 우위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가 근래 동아시아지역과 관련하여 첨증하고 있으며,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실현하는 주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한반도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 냉전체제 속에서 구축되어온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한층 심화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존의 군사력 전진배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되 그 근간을 가능한 한 유지함으로써 최저의 비용으로 군사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정치, 군사적 역할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확보해온 전략적 균형과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즈음하여 동아시아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각국 사이에서 진개되는 복잡다기한 합종연횡은 이 지역 내에서의 미국의 전략 실현 자체나 그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예컨대 일본에서 전후 구축된 냉전적 정치체제인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구축되었으며, 대만 집권국민당의 분열과 신당 창당, 태국 군사정권의 붕괴, 한국에서의 민간정권의 수립 등이 미국의 전략실현 방식 자체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에서 부터 국가 상호간의 쌍무적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 전체에 대해 좀 더 상대국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해주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의 구축하고자 하는 일본에 대해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모색해 가는 것은 한반도 내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해나 요구도 거기에 크게 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이 객관적으로 한반도 내의 민족화해의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세와 조건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활용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민족주의적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출범한 김영삼 정권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거니와 김영삼 정권 출범 이래 통일문제와 통일운동에 있어서의 주도성을 위협받고 있는 민간 통일운동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의 외교통일 정책과 통일방안

김영삼 정권은 짧은 몇달간의 외교통일정책을 통해, 지난 시기의 정권하에서 그야말로 민간에서 시작되어 민간이 주도해온, 그런 의미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정세성을 가장 실천적으로 담보해온 하나의 영역인 통일문제, 통일운동에 대해 자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고 그것은 지배연합 내의 이른바 반통일적 세력들을 부마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개혁성을 의의 원칙이라는 민족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일방안에서도 남북통일의 과정을 "화해, 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 체제로 발전해 나간"는 방안을 밝혔다. (지난 5월 24일 28차 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에서 김 대통령이 밝힌 신외교선언인) 이러한 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서 연방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민족 2국가연합으로부터 한 걸음 나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한 내의 통일운동 측이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거니와 북한측의 주장과도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우리반 상식반으로 자리잡아온 흡수통일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남측의 제도를 확장하는 식의 제도통일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으로써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김 대통령의 임기 중 남북연합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통일방안을 비롯 민족우선의 원칙이나 점에서의 남북간 상호접촉을 기초로 북한핵 문제의 돌출로 인시 정체되고 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물론 김영삼 정권 출범 6개월 동안 정부가 취한 외교통일정책은 전체적으로 민족주의적 외교노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향후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이 보다 선진적 방향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보았듯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지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운이 높아지는 때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그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의도를 쫓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거니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개가 자신의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으로서는 내외의 높아지고 있는 긴장완화·민족주의적 분위기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군사관계 중심의 한-미관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정치와 외교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접근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갖추는 과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새롭게 조성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한으로써 또 자유적 과정을 부엇보다 우선함으로써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위 ·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 유지하고 최소의 군비로 군사적 기반 최대화 한다.

지난 7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 점치적 주도권이 계속 보장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더이상 대중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반공이데올로기 대신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새모습 새시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사영어학원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새모습, 새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뛰어넘어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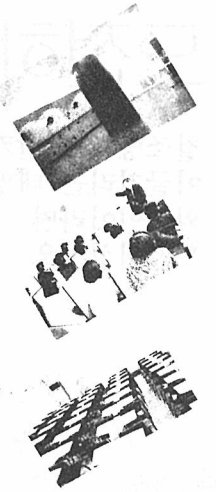
TOEIC
TOEFL L · C
AFKN News & Drama 청취반
미국어 HEARING
TIME
영작문
영어회화(한인 · 미인)
WRITING SEMINAR

일어문법 · 독해 · 회화
일본어 능력시험대비반
독일어문법 · 독해 · 회화
러시아어문법 · 독해 · 회화

TOEFL
영어순해
VOCAB 22000
거로 VOCAB
성문종합영어
성문기본영어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통역대학원전문반

주말특별반



대표 734-2442 종로2가 종로서적 뒤

상호인정→합의서이행→통일방안합의

돌다리보다 단단한 통일로

흡수통일은 안된다

지난 91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부러움과 함께 이제 한반도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씁쓸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지 2년여가 지난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급작스런 통일로 인한 물가고와 통서독 주민들간의 이질감이 쟁점화되면서 오히려 "통일전이 더 좋았다"라는 여론이 들끓는등 심각한 통일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현 상황은 우리에게 2년전의 부러움과는 달리 "통일은 독일처럼 해서는 안된다"라는 귀중한 교훈과 함께 '우리식 통일'에 대한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뿐게 전국민적으로 합의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는 얼마전에 끝난 제4차 범민족대회의 주요의제이기도 했었는데 이렇듯 현 시기에 통일방안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졌다는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또한 "그 어느 통맹국도 민족보다는 못하다"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선언문은 정권차원에서도 이전 시대와는 그 논리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그 논의정도가 요즘들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통일의 절박성과 그 방법상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88년 이후 민민운 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해묘제 해결없이 남북경협 불가'라는 입장으로 바뀌는 등 김정권의 통일정권은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또한 그것이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이든간에 현시적으로는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지양하겠다'라는 태도는 일단 평가할 만한 일이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얼마전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대중씨 역시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은 두개의 독립정부로 구성된 연합단계와 두개의 지방자치정부로 구성된 하나의 연방정부, 그리고 이 두단계를 거친이후 완전한 통일국가 형성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으로 가지 모두 흡수통일에 대한 원칙적 반대라는 부분이다.

일단 이 두가지 통일방안에 대한 반론은 뒤로 미루고라도 형식적이나마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통일방안을 내놨다는것은 합의서 채택과 통일운동이 가져온 일정정도의 성과이며 '흡수통일은 안된다'라는 국민들의 압묵적 동의가 강제해낸 결과라고 본다.

합의서 이행의 기초위에서 전민족적 통일방안 합의해야

통일문제의 해결은 통일환경 조성과 통일의 추진이라는 크게 두가지 문제로 진행된다.

통일환경 조성이라는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이며 통일의 추진문제는 통일환경 조성의 바탕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합의해 들어가는 문제이다. 지난 91년에 남북사이에 채택된 합의서는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이 두가지 과제를 푸는데 가장 유력한 열쇠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통일방안에 있어 어느 한체제가 다른 한체제를 흡수통일하는것은 지양해야 한다. 합의점 도출과 오해전에 '지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을 남북쌍방이 합의했다면 이제는 그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통일의 길도 틔우는 전제조건들을 약속한, 합의서 이행의 여부는 통일과 반통일 세력을 나누는 새로운 잣대가 되어야 한다.

통일방안 합의는 단순히 그 지체만의 고민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통일환경 즉 남북사이의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신뢰와 평화를 먼저 구축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이나 군사적대결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비핵평화군축등이 선결되어야 하는것이다.

때문에 현시기 통일방안 합의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채택의 성과를 합의서 이행으로 발전시킨 기초위에서 '지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전민족적 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사회부>

평화공존에 기반한 흡수 통일 반대,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

합의서 이행 기초 위에서 전민족적 통일 방안 합의해야

통일독일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주지하다시피 '한체제가 다른 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체제통합하는 흡수통합'의 폐해이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흡수통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민적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정부주도의 일방적이고 감격스런 통일선언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한 통일 이후의 문제점은 얽힌히 나열하지 않더라도 신문지상이나 방송 등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통독의 교훈은 요즘들어 격렬작중으로 우리실정에 맞는 올바른 통일방안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어영의 통일운동이 본격화 된지도 3년후인 지난 91년부터이다. 그리고 민민운 진영에서 조심스럽게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를 제기한것도 불과 2년전인 91년 경희대에서의 제2차 범민족대회에서 였다. 그러나 그 2년사이 통일을 둘러싼 정세는 남북합의서 채택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통일방안 문제여시 이제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따뜻한 햇볕을 쪼여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자"라는 이른바 '햇빛론'과 한결같이 취임초기에 '핵과 김럼은 따로 다루겠요약할 수 있다.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에서도 한가지 주목되는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족동권성 회복, 지럼, 지결의 원칙,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부분이다. 이것은 말만 바꿨을 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지난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3대원칙에 그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든 현정권과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론해내는 것은 각기 구현방안이나 형식은 달라도 내용적으로는 연방제식 통일을 취한다는것과 두

통일을 위한 힘찬 걸음 통선대

'전국에서 오신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원들을 열나게 환영해 부러'

단국대 정문을 들어서고 숙소가 허수아비처럼 그려져 있는 지도의 길을 따라 운동장을 지나갈 무렵이었다. 3백여명의 통선대원들이 함의서 이행, 평화정착 이라는 구호와 손뼉을 치며 뛰고 있었다. 펄떡마다 펄럭이며 뛰날리는 깃발처럼 구호는 단국대 캠퍼스를 메아리치며 확산되어 간다.

단국대에 모인 통선대원들은 8백여명쯤 되었고 곧 지녁을 맛있게 먹은 뒤 환상의 결의대회를 가졌다. 총단장인 이종린 선생을 비롯하여 각 대장(지선스님, 이영기 선생님) 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단 발대식이 있었는데 통선대원들 모두 고개숙여 각오를 다진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통선대원. "야 오랜만이다. 너 무슨 핑계대고 빠져 나왔냐? 응 그냥 친구가 군대가는데 몇일 지리산 여행 갔다온다고 그랬어"

조국의 하늘을 이틀삼아 민중들의 살냄새가 나는 땅을 메게삼아 피곤한 눈을 감은지 몇시간도 되지 않아 기상이다. 첫날이라 금방 일어난 통선대원들은 천안역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합의서 이행팀은 목포로 평화정착팀은 진주로 각기 출발했다. 목포에서 처음 반겨준 사람은 시민들이 아니라 3백여명의 전경들이었다. 역광장을 차지하려고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으나 결대는 도로에서 통일근잔치를 하게 되었다. 이날 통선대원들을 기쁘게 해준 노래가 있는데 다름아닌 목포의 눈물이다.

8월 6일(금) 지정에 광주대에 도착한 통선대는 간단한 환영식을 마치자마자 숙소로 들어가 곤하게 잠을 잤다. 아침해가 겨우 고개를 내밀 무렵 먼저 일어난 집주인 남총련 학생들은 1시간 동안 체조도 하고 다른 통선대원들 깨우러 다니느라 꽤 부산을 떨었다.

출정식은 간단히 마치고 민주의 성지 광주를 향해 통선대원들은 미문화원 항의방문을 결의했다. 남총련 지역통선대와 결합한 중앙통선대는 12시 미문화원에 도착하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놈들 물아내자"고 목이 터지라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4백여명의 전경들만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통선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주에서는 결코 볼러설 수 없다며 송성주 대장을 비롯한 통선대원들은 문화원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김지기 '괴용' 소리와 함께 통선대 쪽으로 날라오는 것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돌멩이었다. 지탈탈보다 더 부서운 돌멩이에 통선대원들의 머리, 얼굴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통일전표단에서 준비해간 의약품이 10분도 지나지 않아 지쳐를 감추었다. 주머니 속에 여분으로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꺼내 우선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고 아무 대문이나 마구 두드렸다. 처음엔 꼬마가 나왔고 곧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수도물을 쓰게 해주었다. 미문화원 진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문화원 근처에 살던 국민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던 한 꼬미의 얘기와 그 꼬마가 부른 동어리 양키아노레는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다. "평화롭던 우리 마을에 미문화원이 들어서면서 우리 마을이 계속 시끄러워 졌어요. 미국놈들 나빠요.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야 우리 마을의 평화가…"

다가공원에서 준비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93년 국토순례단(이하 국순단)' 환송식을 끝내고 전주역에서 기차로 대전까지 가는데 오랜만에 비둘기호를 타는 한 대원이 "통선대원에게는 통일호가 잘 어울려야 하는데 이렇게 비둘기를 타고가면 언제 통일이 돼냐"며 하소연을 한다. 충남대로 갔을 때에는 평화정착팀이 미리 도착해 있었다. 합의서 이행팀이 도착하자 비를 맞으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대전,보도소 진격에서도 통선대 다운 여유와 기지를 잃지 않고 부경총련 통선대가 통선대의 특기인 율동에 맞춰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 부사빤스/부사빤스/ 03이가 입으면 짝하고 찢어지는 빤스...

석민지 내조국에/분단에 더 쯤보다/숨죈 것도 없지만/03이 기민적인/통일정책 한다 면/ 가슴 슬퍼 죄껴야…

지난 3일 부터 시작된 통선대들이 입이 닳도록 부른 '사랑이 뭔지'개사곡이다. 합의서 이행과 평화정착 통선대로 나눠어 천안에 집결 목포를 출발해 광주, 이리, 군산, 진주, 대전, 천안, 수원, 부천, 부평을 거쳐 서울 연세대에 입성한 통선대원들은 정부의 원천봉쇄로 인해 장소를 한양대로 옮겨 범민족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토순례를 마친 통선대원들은 12일 연세대를 들어가지 못하고 경희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13일 오후 3시 범대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합의서이행 통선대는 전경들의 위천봉쇄를 뚫기 시작했다. 민지와있던 평화정착 통선대원들은 지탈탈, 최루탄 연기에 놀랄 겨를도 없이 들어오도록 피와 땀이 범벅이 되도록 뿌연 연기속에 쇠파이프를 흔들어댄다. 이렇게 시작된 범민족대를 사수하기 위해 3일부터 국토순례에 참여한 어느 통선대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만나서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서명을 받아왔지만 그 통일열기를 지탈탄, 최루탄에 빼앗길 순 없다"고 상기된 얼굴로 북북히 전경들이 서있는 정문쪽을 바라보며 말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정라·김남중 기자>

서명운동을 통해 받아낸 시민들의 통일 열기를 범대회로…

인터뷰

통선대 활동을 한 강철규 군을 만나

일선봉대 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통일선봉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통선대는 90년 제 1차 범민족대회와 함께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이하 범추본) 산하기구로 전국청년학생국토순례단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통선대활동은 있었지만 체계화되진 못했어요.

▲통선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정치선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통일운동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올해 통선대의 선전내용과 활동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작년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로 선전했었는데 올해는 남북합의서 이행과 평화정착 실현을 중점적으로 선전했어요. 그 외에 청와대에 엽서보내기 운동과 범대회에 적극 참여 유도 등도 선전했어요. 활동도 합의서 이행팀과 평화정착실현팀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지방을 순례했어요. 우선 천안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가 속한 합의서 이행팀은 전주, 마산 등 경상도 지역을 돌며 선전하다가 대전에서 다시 평화정착실현팀과 만났어요.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남쪽을 순례했던 평화정착실현팀은 시민들 호응은 좋았는데 전경과 마찰이 심해서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주로 서명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을 못올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었어요.

▲93학번으로서 어떻게 통선대에 참가하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아직 통일과 학생운동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학기중에 우리역사연구회란 동아리에서 통일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좀더 배우고 저의 결의를 다지고 싶었어요.

▲통선대 활동을 하다가 연행되기도 해서 남들보다 느낀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대전에서 김선명씨 등 항쟁수를 면회하려다 전경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도 거기서 투쟁하던 도중 검거되어 끌려가서 잠도 못자고 빗기도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집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때론 회의도 들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선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과는 달리 통일에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홍 기자>

"힘들었지만 통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17차 모의 UN총회 각국대표 및 통역 모집

의제 : 21세기에서의 UN역할과 변화 방향

기간 : 9월 15일까지

장소 : 학생회관 2층 모의 UN위원회

(961-4458)

대상 : 세계 각국의 언어구사자(단 UN가입국)
<전공에 관계없음>

주관 : 제17차 모의국제연합 위원회
주최 : 27대 외대사랑 총학생회

공 고

제 목 :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 실시

본 대학교 직장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 예비군대원은 일정에 따라 훈련에 참석할 것.

1. 대학별 교육일정

일자	교육대상대학	훈련장소	집결장소	집결시간	비 고
8.23(월)	교직원 대학원	미금사격장	학교 및 미금	06 : 50까지	수송버스 운행
8.24(화)		학교	운동장	07 : 50까지	
8.25(수)	서양어대	미금사격장	학교 및 미금	06 : 50까지	수송버스 운행
8.26(목)		학교	운동장	07 : 50까지	
8.27(금)	동양어대	미금사격장	학교 및 미금	06 : 50까지	수송버스 운행
8.30(월)	정책과학대	학교	운동장	07 : 50까지	
8.31(화)	법대, 사범대	미금사격장	학교 및 미금	06 : 50까지	수송버스 운행
9. 1(수)	상경대	학교	운동장	07 : 50까지	

2. 교육훈련 비대상자
가) 93년도 전역한 예비군대원 전원 및 소집면제자(미필보충역)
나) 지역에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다) 전역 7년차 이상자 중 소집교육 4시간 이수자

3. 유의사항
가) 소집방법은 소집통지서와 확보 및 공고로 병행한다.
나) 대상자는 예비군복을 필히 착용한 것.
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수송버스 이용자는 06 : 50까지 학교에 집결할 것.
마) 중식은 각자 지참할 것.
바)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5일 이전까지 예비군 본부에 문의할 것.
사)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음.

1993. 8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장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본교 직장 민방위 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하오니 전 민방위 대원은 필히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교직원중 20~50 세까지의 전 민방위 대원
2) 일 시 : 92. 9. 1(水) 07 : 00~07 : 30
3) 장 소 : 대학원 104호실

1993. 8.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민방위대장

□ 제 4차 범민족대회 행사중 범민족회의에 대해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성황리에 치른 범대회

민족화해와 민족단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4차 범민족대회(이하 범대회)가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지난 13일(금) 부터 사흘간 성황리에 치루어 졌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범대회는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민간단체가 참가하는 등 시, 군, 구 및 부문조직화 사업을 통해 대중의 참여폭을 넓혀 노동자, 농민, 교사, 학생 등 4만여명이 참여했다.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이하 범추본)는 '대중성' '합법성'의 기치아래 정부를 반동인 세력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통일운동을 함께한다는 원칙하에 최소한 정부의 협력이 없더라도 서로 북악하는 한에서 범대회를 대중적으로 치뤄보자는데 합의했다.

제4차 범대회 행사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범민족회의는 남, 북, 해외 3자가 함께 모여 통일에 대한 뜻을 모으려 했으나 정부의 탄압공세로 15일(일) 남측은 한양대에서 대표자 1백78명의 인사들이 모여 분산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범민족회의는 주의제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직설적 표현을 지양하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제시됐다. 남북합의서이행, 평화정착, 일본 군국주의화 대례, 통일 방안마련(간편기사 5면) 등 4가지 안을 모더라도 범추본이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주력하였는지 엿보인다. 제4차 범민족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합의서)는 그 채택과정 자체가 통일문제 해결에서의 중요한 원칙인 '민족지주' '민족 대단결' 입장을 구현하고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초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민족내부의 대결관계를 해소하여 화해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업과 공리를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의 성실한 실천이야말로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이다.

한편, 기본합의서에 이어 부속합의서가 체택되고 그 실천기구인 4개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앞두고 지난해 10월이후 공동위원회활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김승국씨(평화통일 연대회의 사무처장) 는 "남북합의서는 불가침 선언에 준하는 것이며 합의서 이행의 최대 걸림돌은 핵문제"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남북 동시사찰, 특히 주한미군기지의 핵사찰은 남북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며 합의서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규태 교수(성공회 신학대 신학과)는 "핵문제는 남한정부가 합의서를 지지 않기위한 하나의 인위적 장애(?)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합의서 이행이 가장 실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서를 이행해야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이를 위해 국회비준이나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남북합의서 실천의 걸림돌은 여러가지가 있다. 이에 범추본은 정부당국이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합의서의 구체적인 실천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미국은 더이상 핵문제를 앞세워 남북의 화해노력을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이념, 사상보다 민족

둘째,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에 대한 대책이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은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은 국제연합과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요약된다.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준비 상태를 마무리하고 전쟁발발의 근본원인을 제거 하면서 적대적 긴장관계를 우호적 화해관계로 바꾼다는 것이며 나아가 비핵지대화로서 미국의 유엔패권주의 정책이 탄생시킨 한반도 핵 긴장상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 핵공방은 일본의 핵무장과 군국주의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어 한반도 분단 상태를 이용한 미국의 '북한 옷벗기기' 공세는 그 허와 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오늘 하나를 들춰내면 내일 또 하나를 들춰내려고 합니다"는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의 발언처럼 설사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또다른 빌미를 잡고 한반도 긴장지속을 위해 북한에 어떠한 압력을 가할지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미국의 묵인하에 진행되는 정치군사 대국화로 인해 남과 북은 묶은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중의원 총선거로 전후 자민당 체제가 붕괴되고 신보수주의 세력이 중심이 된 비자민 연합정권의 탄생은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를 구체화 하고 신군국주의 부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일본은 정치군사 대국화로 가는데 있어 전후 처리 문제를 시급히 마무리 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입해서 국제적 패권을 도모하려 한다. 92년 캄보디아 해외파병으로 일본이 '군사국가'로 부활하였음은 전세계가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자위대의 공격적인 해·공군력 강화 핵무장을 위한 플루토늄의 다량도입 등으로 동북아의 군비확장 경쟁을 부추기는 일본의 재무장은 대동아 공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군국주의화 움직임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범대회의 모든 행사가 치뤄졌으나 올해는 시민단체, 지역조직 등이 먼저 범대회를 준비하고 나섰다. 일에로 범대회 성남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성남시민 한마당을 합법적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로인해 예년에 비해 시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지기는 했으나 범추본의 행사가 단순히 축제에 그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들을 하나로 모아내는데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문제제기도 있다.

범추본은 민간통일운동 사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수 있는 이산가족 찾기운동, 남북합의서 이행촉구 서명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층 민중들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와 대중적 지지를 어떻게 수렴할것인가와 끊임없이 남, 북 화해 방해책동을 벌이고 있는 외세의 간섭을 어떻게 배제할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리고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공동기자단, 정리-김남중기자>

제 4차 범민족대회가 지난 13일(금)부터 3일간 한양대에서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졌다.

남북대화 재개와 합의서 실천에 노력해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비핵지대화 실현해야

□ 제 4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상임본부장 강희남 목사를 만나

두터운 옷을 벗어야 할 남과 북

범민족대회 장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긴급히 연세대에서 한양대로 옮겨져 치뤄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한양대에서 강희남(74) 범추본 상임본부장을 만났다.

정부가 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하는 탄압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문민정부의 치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통일의지가 있다면 구시대적인 사고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맡긴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순수 민간 통일운동과는 거리가 먼 정치행사라고 비난하고 정부를 제쳐놓고 직접 북한당국을 상대로 통일문제를 협의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일관되게 통일문제 해결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이 나름대로 있으며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국민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둡니다.

앞으로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통일운동은 반외세 민족자주운동입니다. 외세에 의존(특히 미국)해서는 결코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일의 제1 원칙은 자주입니다. 민족은 영원하고 자권은 짧다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 4차 범민족대회는 남과 북, 해외에서 분산 개최됐는데 ...

범민족대회는 굳지 그대로 온 민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분산개최를 공간적 분산개최라고 봅니다. 즉 공간적으로 만나지 못할 뿐 정신은 하나입니다. 북이나 해외에서 나오는 결의문과 남의 결의문이 비록 공동결의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생각,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념적 분산개최는 결코 아닙니다.

상임본부장으로서 4차 범민족대회를 보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대중화에 한 발 다가갔다고 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7순 노인까지 참여했고, 통일선봉대가 전국을 돌면서 폭넓은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탄압이 없었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요.

지금까지 범민족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났다면 이번 93년 범민족대회는 그 성과를 계승하여 대회 결의사항인 남북합의서 이행,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이산가족 찾기 등의 민간통일운동을 계속하면서 94년 범민족대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남과 북 모두 두터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민이든 관이든 옷을 벗고 알몸으로 만나야 합니다. 민은 알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통일운동, 범민족대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좋은 점을 뽀아 청춘남녀가 결혼할 수 있듯이 남과 북은 서로 좋은 점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정리-사회부>

"민과 관이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통일문제 해결해야"

범민족대회 이모저모

▲부경총련 학생들이 14일(토) 아침 잠까지 설쳐가며 한양대에서 황당한 꼴박질을 했다는데.

알고보니 4차 범민족대회 개최지인 연세대로 진격하기 위해 대열을 정비하고 교문까지 뛰었으나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연세대를 봉쇄해 계획이 무산된 것.

이에 학생들은 몹시 아쉬워하며 "아침운동 한판 잘 했다"며 서로를 달랬다고.

▲단발머리에 지극히 엣된 소녀가 함의서 이행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알아보니 고등학생!

범대회에 참석한 고등학생들만도 5백여명에 이르러, 보는 시람들로 하여금 나이를 초월한 범민족적 통일열기를 느끼게 했다고.

▲8월 11일(수) 통일선봉대는 청주를 떠나 원주 상지대에 도착, 출정식과 시내 선전전을 하였다. 서울 상황이 범민족대회를 불허, 범민족대회를 거행하면 범추본 관계자들 모두 구속한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통선대 대원들은 이후 일정을 변경 범민족대회가 알리는 서울 연세대에 입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원들은 '짬세'가 눈치챌 못체도록 고도로 위장을 하였다는데. 화려한 반바지와 T를 입은 모습, 아저씨처럼 변장한 모습, 그리고 말짝하게 정장한 모습 등 그 모습이 가지각색이었다는데. 언제까지 이런 변신을 시도해야 하는지.

눈과 머리에서 입과 귀로
개강 : 9월 1일
오리엔테이션
9월 1일 AM : 7시 PM : 8시
인터뷰 : 마지막주
日本語 회화
★듣고→말한다 →듣고→쓴다
체험학습 60分
★한인, 일인연계강의
I.M.I 영어회화
★ 전원 Native speaker
★ Level 5단계 각 3개월
컴퓨터 영어회화
보고, 듣고, 느껴서 입으로 줄줄 쏟아지는 기적의 영어학습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Host Family가 되어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온 외국인과 1~4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E.I.I KOREA
문의 816-2030
일미일외국어학원
☎817-9362·3
노량진 전철역 옆 일미일B/D

삼육외국어학원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아동 각국이 자매학원으로 운영하는 외국어 회화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각학원 선착순 모집★
• 개강 : 8월 30일(월)
• 접수 : 8월 22일부터 : 영동, 인천, 수원
8월 25일부터 : 서울, 남영, 신림
서울학원 – 영어, 일어, 러시아어 T. 서울(244-1275)
영동학원 – 영어, 러시아어 T. 영동(543-2270)
남영학원 – 영어, 일어 T. 남영(706-3615)
신림학원 – 영어 T. 신림(889-4637)
인천학원 – 영어 T. 인천(032-82-3064)
수원학원 – 영어 T. 수원(0331-214-2225)

빨래방
외대후문점
간편한 세탁 건조까지
카시미론 이불
밍크담요도 가능
963-5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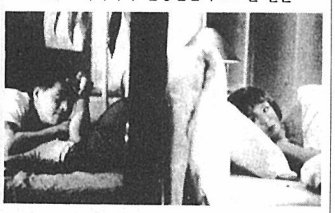
'94 시행 대비 공무원
사법시험 | 행정고시
취 직 | 대 학 원
언론고시 | 각종공사
7·9級 공무원
鑑定平價士
★92년 제9회 1次 필기합격자, 30% 감점 혜택 실시!
★교재 및 자습서 위해 출간예정 된 전문 참고서들
▶1, 2차 종합반(오전반 · 저녁반 · 주말반)
공인勞務士
● 국내 유일한 노무사 전문학원(추가 면접, 영어)
▶1, 2차 종합반(야간반)
경제학특강
法務士
★국내 유일의 자습서 전문학원('92년 1次 80명 합격)
損害査定人
★국내 유일의 자습서 전문강의
行政考試學院 상담 접수중
종로 : 734-8082 남부(노량진) : 815-7819
동남(서울) : 523-0225 일미일(노량진) : 817-9362

프랑스語
9~10월 학기 수강 접수중
개강 : 93년 9월 1일(수)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Nouveau/Différent/Actuel
알리앙스프랑세즈
BEF I · II, MA I · II, NSF I · II · III, AP, ARC, ESP II, 시사뉴스반, 청부첫이반, 녹해첫문반, 특강독일반 등
유학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강북 : 755-4972, 5702
강남 : 555-1125, 1126
(대구는 대구알리앙스로 : 255-4630)
alliance française
알리앙스 프랑세즈

급증하는 기획사를 점검한다

<1> 영화·연극계의 기획사

<2> 기획사의 발생원인과 그 갈 길은



모든 부문에 '기획'의 시대가 도래했다. 영화·연극 등 문화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2회에 거쳐 영화·연극계의 기획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영화·연극계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현상은 폭풍처럼 급격하게 번지고 있다. '잘하면'명예와 함께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고 '잘못하면' 좌절과 함께 명예마저도 잃는다.

바로 '기획'이 그것이다.

이전의 영화나 연극은 영화제작사나 극단에서 시나리오부터 흥보 등 작품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했다. 그러나 91년을 전후하여 충무로의 새로운 바람으로 일기 시작한 것이 '기획사 붐'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영화기획'

우리나라에 영화가 들어온 지 80여년.

일제시대 변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몸두했던 흑백 무성영화 시절을 거쳐 6·25 전쟁의 혼란을 딛고 마치 '시네마천국'의 극장처럼 온 동네사람이 마음을 의지하던 영화 전성기 50년대와 60년대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서슬이 퍼렇던 70, 80년대, 영화업자도 수적으로 규제당하고 '달동네'를 촬영하는 건 이적행위라 하여 기치없이 잘려나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한때는 배우의 시대가 있었고 또 한때는 감독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1993년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획의 시대'이다.

영화계의 기획사는 '돈'만 빼고 영화제작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감독과 스탭진을 섭외하고 이 '상품'을 가지고 제작자, 즉 돈줄을 섭외·홍정한다. 또한 영화의 촬영부터 개봉까지 일정이나 광고홍보기획을 한다.

대표적인 기획사로는 '결혼이야기',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등을 기획한 '신씨네', 비디오 영화를 제작하는 '기획시대', '시네월드'등이 있다.

신씨네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이야기'는 기획영화의 대표격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5회나 되는 시나리오 작가의 교체, 치밀한 홍보전략 등 철저한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결혼이야기'는 혹자에게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장면과 내용의 가벼움에서 비판을 듣기도 했다. 반면 관객의 요구에 맞추지 못해 대중적 신뢰를 받지 못했던 한국영화에 '우리 영화도 재미있고 좋다'는 느낌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외의 '백한번째 프로포즈', '그 여자 그 남자' 등도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받는다.

정리되지 않은 '연극기획'

연극계는 아직 영화계만큼 기획사가 조직적으로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계속 늘어나 있는 추세이다.

영화와 같이 희곡 선정에서 배우선정, 상연까지 모두 맡는 기획사가 있는가 하면 극단에서 의뢰해 작품선정, 홍보 등 부분적으로만 기획하는 곳 등 다양하다. 연극계도 역시 '흥행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흥행성'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다시 등장하는 '벗기기 연극'들이 그것이다.

그중에는 페미니즘 연극 '지기만의 방'을 기획한 여성문화예술기획, 정신대문제를 주제로 한 '소리없는 만가'를 기획한 관기획 등 기획사를 통해 문제의식 있는 주제가 새롭게 다루어진 연극도 있다.

<이옥선 기자>

□북한영화 시사회를 보고

통일의 날개짓으로 비상하라!

남누리 북누리 하나되는 소박한 영상의 장

영화에 관한 한 현대인은 전문가다. 적어도 그들이 본 영화의 양으로만 본다면 그렇다. 이 사회의 어떤 종류의 모임에서건 영화에 관한 이야기거리는 고정된 기본 메뉴이다. 그러나, 전문가인 우리들이 하는 영화얘기에는 늘 허전함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서구 영화에 대해서만 전문가일 뿐 떼시요금 '이만원'이면 갈 수 있다는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는 영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반쪽 영화전문가(?)들이 미국과 서구영화가 아닌 북한영화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는 시사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제3국을 통한 남북영화예술제가 뉴욕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정작 분단의 고통과 이산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서는 감히 개최할 수도 없었으며 북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실정에서 통일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제4차 범민족대회를 맞아 북한영화 시사회가 열린 것이다. 이번 시사회를 주최한 한겨레영화연구회는 이번 시사회를 계기로 북한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남북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북한과의 문화예술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북한 영화 시사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범민족 기간동안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상영된 다섯편의 북한 영화는 북한 일본 한국영화 '새'를 비롯한 '홍길동'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안중근 이등박문쏘다'의 작품들이다.

6·3 2주기 기간 동안 본교에서 상영된 바 있는 '새' 는 국경을 자유로이 날아 드는 새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담아낸 작품이었다. 이 영화는 회고 장면을 통해 새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40여년 동안이나 서로의 생사를 확인 못하고 살아야 하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함께 남북으로 잊 닿는 부자간의 마음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강렬히 호소하고 있다.

'새' 상영이 끝난 시사회장은 우리는 한 민족임을 깊이 깨닫아 통일의 힘찬 한걸음을 내딛은 희망찬 분위기였다.

또,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활극영화 '홍길동' 은 극중 길동의 유머와 위트 뛰어난 도술에 사랑의 테마까지 가미돼 상영때 마다 300여명 이상의 관객이 함께 한 영화였다. 17세기 허균의 중세소설 '홍길동전'을 원작으로 하여 조선시대 봉건통치자의 무능력과 취약성을 폭로하고, 당대 민중들의 지향을 반영했다.

이번에 상영된 영화중 유일한 만화영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는 아동영화라기 보다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다. 프랑스와의 합작품으로 고구려 통일역사의 첫장을 기록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장장 세시간 반의 장편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쏘다' 는 항일부장투쟁기에 유격대원들이 창작 공연한 동명의 희명 연극을 각색했다. 일제 침략의 상징이며 민족의 원수 이등박문을 총살한 열혈 청년 안중근의 애국적 삶을 주된 내용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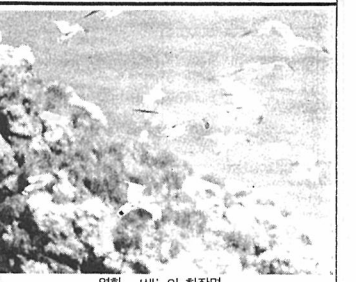
우리에게 '평강공주와 바보온달'로 익히 알려진 전래동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다. 바보 온달이 장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훌륭한 장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궁궐에서 쫓겨난 평강공주와 결혼해 꿈을 이뤄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섯편의 영화에서 북한 영화의 흐름과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다.

49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 때문에 동족임을 망각한 채 지내온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화교류에서 부터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7천만 민족 한사람 한사람이 준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미나 기자>



영화 '새'의 한장면.

문화 응답샘

우리 역사 이야기 1·2·3

—조성오 지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토대이고 내일에의 지침"이라고 즐겨 말하는 작가가 3년에 걸쳐 완성한 역사책이다.

전3권으로 원시시대에서 임진왜란, 조선후기에서 식민지, 8·15에서 6월 민주항쟁의 서른두마디로 역사를 나눠 이야기식으로 서술하여 보다 쉽게 우리눈으로 우리 역사를 점하고 이해할 수 있다.

(돌베개. 오천원)

동양철학 에세이

—김교빈외 지음

동양철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노자, 공자, 장자, 묵자 등의 다채로운 사상의 형성과 세계관을 해설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 사상의 현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동녘. 사천오백원)

쇠찌르레기

—리증상외 지음

북한 작가들의 최근 작품을 모은 단편소설집이다.

표제작 림종상씨의 '쇠찌르레기'를 포함한 12편의 단편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의 절절한 염원, 교육문제, 북한 주민들의 일상사를 그려내고 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된 단편들은 소재의 신선함과 북한 작가의 풋풋한 순수성을 엿볼 수 있게 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남북간의 이질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면서 북한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살림터. 오천원)

장작판소리 오적(五賊) 소리내력

—소극장 확전 주최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우리의 판소리 가락에 실어 통렬하게 비판했던 김지하의 오적, 그리고 소리내력을 소리꾼 임진택씨가 9월1일부터 5일까지 재공연한다. 70년대와 80년대의 치열했던 시대의 아픔과 함께 우리말이 지닌 풍부한 표현력과 장단으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이다.

(장소 : 소극장 확전
입장료 : 팔천원)

우리말의 쓰임새

(238) 잊어버려서→잃어버려서

"어제 밖에서 열쇠를 잊어버려서 참 고생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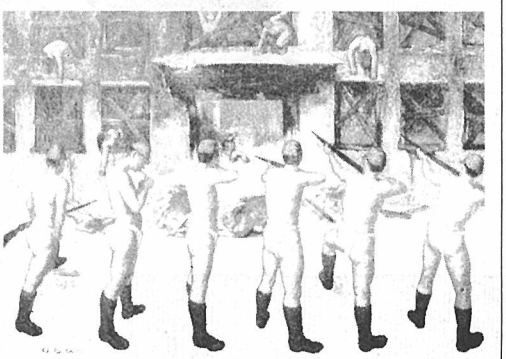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물건등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말을 할 때에는 위의 예처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밖에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참 고생했어"로 말해야 옳다.

서울캠퍼스 동아리<우리말 연구회>

지상전람회 — 군위안부전

한(恨)의 역사를 나누며



도록(2)

지난 8월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인사동 '갤러리터'에서 한희숭씨의 군위안부전이 열렸다.

군위안부를 전면 주제로 하여 제작된 작품을 보는 일이 아직 우리 현실에서 드문 사건(?)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희숭씨는 실증 자료를 중심으로 군위안부 주제에 접근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작품 한점 한점마다 당시 군위안부의 처절한 일상이 읽혀진다.

죽은 동료의 뼛가루를 뿌리는 일(화장), 실성한 동료가 물만 보면 뱃목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광녀의 망향), 콘돔을 물에 씻어 재사용하는 작업(삿쿠를 씻으며), 어린 일본군병사의 무덤에 꽃을 놓아주는 모습(위령)등이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충격적인 장면의 효과를 주면서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민미협(민족미술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사회 참여적 미술을 계속하고 싶다는 그는 '인간의 파괴욕이 만들어 낸 참담한 과거의 문제에 대해 되새김질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며 "나의 작품을 속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지닌 역사적 사실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화석화된 역사의 한 장을 살아있는 오늘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말한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조선 민족성 말살과 민족의 씨 말리기 정책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 앞에서는 남북과 여야와 남녀가 따로 일 수 없다.

우리는 일본으로 하여금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죄와 전쟁범죄를 인정하도록 만들고 배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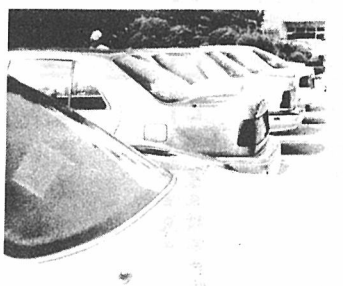
<이수미 기자>

기획캠페인—이렇게 합시다 <1>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외대인 모두가 열흘에 한 번만 쉬어요!

차가 많네요!



매체 비평

□—6·12 김춘도순경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

언론에 의한 피해자 배·병·성

우리나라 사회에서 언론과 권력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공존공생 해 왔다

6.12 예비회담 사수 투쟁

지난 여름방학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에게는 친구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남북청년학생 자매전연 예비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가던 도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시위진압 중이던 김춘도순경이 사망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시위에 참여했던 다수의 학생들이 특별한 증거없이 연행됐고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자 경찰은 마구잡이 식으로 용의자를 색출, 결국 본교 배병성(사회·경정4) 군이 살인 용의자로 구속됐다. 이에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한 채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배병성학우 무죄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 동분서주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과연 배병성학생은 김춘도순경의 살인 진범인가? 6.12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론은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억울하게 살인범이 된 배병성군을 보는 눈은 냉담하기만 한다. 이는 결국 여론이 김춘도순경의 사망원인이 학생들'; 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여론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큰 몫을 담당했다. 여기에서 이 시대 언론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언론이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을 세워버린 것이다.

6·12사건 직후 각 일간지는 왜곡, 과장보도를 남발했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의 보도양태

과연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그 지리에 없었던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보도를 했는지 각 신문의 보도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들은 명확한 증거없이 경찰측의 발표에만 따라 학생들의 폭력에 의해 김순경이 사망한 것으로 단정지었다. 보도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에서 부터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경관, 시위 대학생에 맞아 숨져(서울, 6월 13일자), 경관, 데모대에 맞아 숨져, 쓰러진 김순경에 돗매(조선, 6월 13일자), 끝내 죽음을 부른 폭력시위(경향, 6월 14일자) 등 마치 사건발생 지리에서 각 신문기자가 목격한 것처럼 제목을 뽑아 폭력에 의해 김순경이 사망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경찰'이라는 출처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날 김순경의 사망사건을 다룬 방송매체 역시 보도의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 사건을 머릿기사로 다룬 각 방송매체들은 사건발생 당시의 장면이 아닌 한총련출범식 당시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 날의 시위가 폭력시위인 양 보도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위-명확한 증거없이 한측의 주장만을 기술하는는 지금에 와서 무고한 한 학생을 살인범으로 모는 사태까지 발천, 언론의 본질을 망각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행한 것이다.

한국 언론의 실태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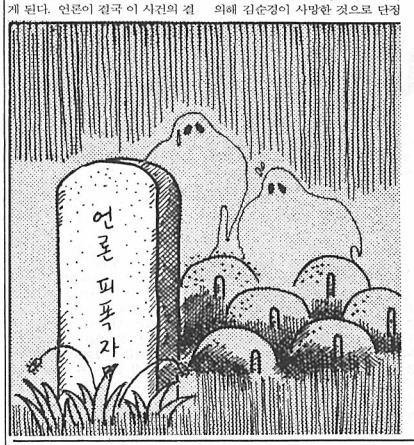
'언론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역대 우리나라의 정권은 이 말을 너무나도 성실히(?) 지켜왔다. 5공화국 시절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보도지침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권언유착이 사라진 듯 했지만 개발적 접촉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 6공화국의 권언유착이 그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언론장학생'사건으로 언론에 집요한 관심을 기지며 화려하게(?) 출범한 김영삼정권 역시 군사정권 시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영력히 보이고 있다.

왜 이렇듯 독자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녀야 할 언론매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언론이 권력으로 부터 자율성과 중립성을 외치더라도 특수한 경우 외에는 현 제도언론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권력이 자신의 사상을 유포하고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을 필요로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의 추구를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화된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권력과 언론이 유착돼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배병성이라는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6.12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 6.12사건은 법정논쟁을 남겨두고 있다. 언론과 권력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떤 컬난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맡기는 가장 초보적인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현 언론과 기존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합부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의 작태를 정확히 파악하자. 6.12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훈성 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명수당 (明水堂)

오늘날 7천만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은 통일이다. 김구 선생이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어 귀국한 첫 말이 통일이었다. 이승만은 통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둘 다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전자는 전민족을 대변했던 사람이었고 후자는 친미 반쪽의, 그것도 그의 파당을 대변한 사람이었다.

김구선생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전체이고 이승만을 기여하는 사람은 그가 만든 파당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의 심판은 이렇게 준엄하다. 그런데도 오늘에 또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일을 염원하고 있고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나라가 반토막으로 영원히 갈라져 남쪽은 미국의 간섭에 의해 지배되고 북쪽은 중국의 통에 업혀서 지탱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념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소수의 특권이 무슨 잠꼬대인가? 더러운 특수 계층의 인간들은 어서 반성하여 뒤늦게나마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데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방직후 6.25동란의 와중 그리고 미소 초강대국들의 이용-이러한 것들이 이미 사라져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안일무사주의적인 태도로 나라의 통일을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대하고 있으려는가? GNP가 올라가는 것도 좋고 휴내라도 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민족의 급선무이며 최대의 염원은 통일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서 통일에 여념이 없어야하지 않는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리진 지 거의 반 세기가 되고 있기에 남과 북이 일시에 통일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을까? 하나 둘씩 민족의 통일성을 되찾거나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정치학자가 아니기때문에 여기서 세세한 정치적인 것을 제시할 수 없다. 또한 이 짧은 지면에 그것들을 열거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될 수 있는 한 민족통일성을 내세워 통일의 기틀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세워 나가야 한다. 왜 남북한 학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가? 학문에는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없을 것이기에, 왜 이산가족 또는 같은 민족이 왕래하지 않는가? 이점은 왕래만 하지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 또는 협약이 필요하지만, 왜 대중매체의 교류를 하지 않는가? 토산품은 오래 전부터 서로 교환하면서도, 왜 예체능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가 없는가? 탁구나 축구에서처럼 남북한 단일팀들이 오래 전에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 민족이 지금 당장 민족통일성을 토대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시기상조이니 정부가 주도해야 하느니 또는 젊은 학생들이 성급하게 비무장지대를 행진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비겁하고도 어리석은 짓거리들만을 일삼고 제자리걸음을 무의식중에 하고 있어야 하는가?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이념은 더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상 준
<영어과 교수>

성적에 의한 제적조항

정검다리

요즘 대학을 가리켜 세상과 담을 높이 쌓고 학문과 진리 탐구에만 정진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사회변화에 민감하며 사회변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온 입시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보다 폭넓은 교육에 주력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학점만으로 대학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제적조치까지 내리는 학칙이 있다. 91년도 6.3사건 이후 전국사립대학 총장회의에서 발표된 '학원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본교에서는 92년도 1학기부터 학칙 제8장 휴학, 제적, 퇴학에 관한 조항 중 제 26조 2인항목에 '학업성적 평가에 따른 제적'이라는 학칙이 부활했다.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1.5미만으로 학점제한조치를 3회 받은 자와 2.0미만으로 학사경고를 4회 받은 자는 제적조치가 취해진다. 학점제한조치 2회를 이미 받은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는 제적이 되지 않지만 학사경고 3회를 받은 학생이 학점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제적된다.

학칙개정 이후 개정된 학칙에 의하면 본교에서는 이번학기 치음으로 학업성적평가에 의해 38명이 제적 당하게 된다. 성적평가에 의한 제적생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학교측과 협의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적여부에 관한 협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점에 따른 교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처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이미 지난 학기에는 순천대, 배재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제적 되었고 이번학기 역시 여러 학교에서 학점에 의한 제적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른학교 사례와 비교해 본교의 학칙이 유독 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진로가 있고 가치관이 정립된 대학인에게 성적평가에 의한 제적조치는 너무나 엄중한 징계이다. 이렇게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회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된다.

학업에 소홀하였다하여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사제적제도는 유념하지 않으면 어이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남점미 기자>

우리네 먹거리 되찾기— 마나

이제 반찬투정을 하시렵니까?

아침식탁에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깃국에다 중국산 나물과 스코틀랜드산 고등어 자반이 오르고, 저녁에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끓인 캐나다산 대구머리탕과 일제간장 등으로 식단이 짜여져도 이제는 별로 낯설지 않다.

또 일본에서 양식된 도미나 태평양에서 잡아 국내에 들어온 놈과 참치회를 먹어보지 않고는 회맛을 자랑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부말랭이, 토란대, 도토리, 메주 등 토속 찬거리에서부터 버섯, 옥수수, 콩, 녹두는 물론 누룽지에 이르기까지 개방물결을 타고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이 도시는 물론 농촌가정의 안방에까지 깊이 침투한 것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값싼 수입품이 국내산을 가격경쟁에서 제치고 도소매시장을 휩쓰는가 하면, 국산으로 둔갑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개시 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어가의 생활기반마저 뿌리채 흔들어 놓고있다.

農業은 生命倉庫
農民은
人類의 生命倉庫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突然히
商工業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農業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변치 못할
生命倉庫의 열쇠는
의연히
地球上 어느 나라의
農民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尹奉吉 義士
"農民讀本"中에서

신천광고 대행에 기쁨을 찾는 나래기획은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획로
『우리네 먹거리 되찾기』광고를 "이어싣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래기획

□ 현장취재—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을 찾아

이제는 지워야 할 군사정권의 얼룩

지난 8월9일(월) 전국 정치범 수배자 40여명은 연세대에서 '6공 정치 수배의 일괄적 해제, 양심수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투쟁을 결의하고'6공 정치 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수배자 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한 뒤 곧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수배 내용과 시기의 차이, 그리고 신분적 제약에 의해 공개적 활동이 불가능하여 함께 모일 수가 없었다. 즉 수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별처리, 개인문제로 국한되었던 것이다.

"6공 정치범, 지난번에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민정부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200여명의 수배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창살없는 감옥'에 갇혀있다. 이들은 대개 6공 군사정권 아래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한 사람들이다. 모든 수배자가 모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씨뿌렸으이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신(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대책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런 부자유한 몸인데도 이렇게 나선 것은 우리들 자신만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의 전원 석방이라는 더 큰 대의적 투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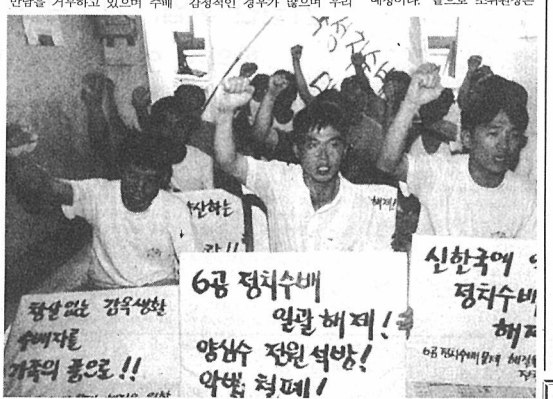
지난 4월20일 검찰에서는 '6공 수배자들이 지수하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지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으며 임수경씨 평양축전 참가, 강경대씨 시위 투쟁 등의 정당성을 많은 수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지수할 수 없는 것이 수배생활이 너무 고달퍼 지수하여 그냥 몇년 살고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때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대표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시점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수배해제를 위해 현재 검찰청과의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으나 검찰청에서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배해제 농성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국민에게 알리는 사회 여론화 작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월말 연세대에서와 6월초 광주에서의 단식농성을 성과적으로 끝맺지 못한 것도 바로 국민과의 공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식농성까지 갈지는 불투명하고 단식농성을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부의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여론화 작업을 충분히 한 뒤 그 여론을 바탕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수배 문제는 국회 차원의 법개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방에 의한 정부의 결단으로도 해결될 문제이므로 여론의 뒷받침을 가지고 싸운다면 곧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선전일을 맡고 있는 본교 권용상(동양·이런이 89) 군은 "선전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조차도 수배해제에 대해 막연히 해결돼야 한다는 식으로 감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우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지수할 수 없는 것이 수배생활이 너무 고달퍼 지수하여 그냥 몇년 살고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 군사정권때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대표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시점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책위에서는 앞으로 국회의원, 변호사, 재야인사 등을 중심으로 사회 대책위를 결성하고 도움일꾼을 조직해 역량을 높일 계획이며 서명운동, 청와대 엽서 보내기 운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사회 여론화를 꾀할 예정이다. 끝으로 조위원장은 "지난 30년을 넘게 한국사회를 짜들게 했던 군사독재 정권과 그 아래에서 빚어진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수배 문제를 푸는 근본 해결책입니다"라며 "현 문민정부가 과거와 다르다면 이번 투쟁의 결과가 이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위해 피맺힌 절규를 하며 일어섰고 이런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지훈 기자>



지난 8월 9일(월) 전국 정치범 수배자 40여명은 연세대에서 수배해제를 외치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 : 시사저널>

"군사정권 아래 빚어진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수배를 푸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93년 '공동임금투쟁'을 정리한다

문민시대에 왜 노사분규인가

지난 2월경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은 '공동임금투쟁(이하 공동임투)'을 결의하였다. "여태까지의 투쟁들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에 현대기업측에서 안기부보다 더 무서운 중합기획실을 만들어 계열사 하나하나의 쟁의를 분쇄시켜 나갔는기라에. 그래서 쟁의를 분쇄시켜 나갔기라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지에." 현총련 총무차장 한정화씨의 말이다. 현대측에서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계열사마다 임금인상률에 차별성을 두어 각사의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한다. 또 제작조금씩 빼놓고 우리가 가장 믿고있는 현대정공노조위원장(김동섭 현총련의장) 이 직권조인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대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수작이었는기라"라고 한씨는 말한다. 6월이 되서야 3% 인상률이 겨우 제시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공동임금교섭을 해오던 중 6월 4일(금) 현대정공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소식이 전해졌다. "회사측의 엄청난 압력과 회유에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서도에 제작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배신감을 느꼈지에." 하 감금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6월 15일(화) 87%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조합원들은 만약 정공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에는 즉시 파업으로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결국 현대정공의 '직권조인' 무효화를 계기로 현총련 93년 공동임투가 본격화 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회사측은 을며겨자먹기식으로 직권조인에 대한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측은 '현총련은 법외단체'라는 이유로 협상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측은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내세워 7월 3일(토) 현총련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다. 이번 쟁의를 취재온 프랑스의 한 외신기자는 "노조위원장들의 모임인 현총련이 왜 3자인가?"라며 의아해 했다고 한다.

결국 현총련의 7월 7일부터 시작한 연대총파업은 현총련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철회시킬만 했다. 15일 정상조업에 들어가면서 다시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공동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지행되자 정부는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 발동방침'뿐만아니라 공권력을 배치하였다. 전국 자동차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4.3% 인상)에 잠정합의하고 총회에 올린다기로 하였다. 23일 현대자동차는 회사측 제시안이 50.07%로 가결되었지만 조합원 다수의 반대표는 정권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였다.

현대자동차 타결을 분기점으로 다른 계열사 노조의 투쟁은 일거에 무너뜨리려던 회사측과 정부의 시도는 23일 현총련의 제 2차 총파업으로 실현될 수 없었다. 사측제시안이 받아들여졌던 현대자동차도 "계열사 공권력 투입시 구속을 각오하고 연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직장폐쇄 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쟁의의 마무리는 노동자들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직권조인과 물리력의 동원에도 흔들림없이 전개된 이번 현대노사분규는 19일 현대중공업 타결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노사분규를 정리하면서 현총련 의장 직무대행 이동우씨는 "이번 공동임투는 계열사간의 단결을 더욱더 견고히 하였으며 일방적인 고통분담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될 만합니다"고 말한다

<신동헌 기자>

사측의 직권조인 인정이 쟁의의 불씨

'제3자 개입 금지'등 노동악법 여전히

기자수첩

'정치성'과 '비정치성'

"뭐 상황설명이 랄것까지 있습니까? 막으니까 왔지요."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조성우씨는 지난 13일 행사장으로 예정된 연세대가 당국의 원천봉쇄로 인해 갑작스럽게 한양대로 옮겨지게된 정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양대로 오기까지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당국의 대회 불허방침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건장감에 사로잡혀있던 한양대 노천극장 2만여명 학생들은 조씨의 능청스러운 답변에 일제히 웃음보를 터뜨렸다.

"우리 대회장(문익환 목사) 님이 개막식을 하루 늦추더라도 당국의 허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만....." 라며 연세대에서 범대회를 치루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의 말을 이었다.

정부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주제로 한 제4차 범민족대회가 정치성을 띤 집회라는 이유로 12일부터 연세대일대를 전투경찰과 페퍼포그로 새카맣게 메워버렸다. 한편, 같은 기간의 남북인간띠잇기 대회는 비정치적 집회로 인정받아 허가되었으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대회에 참여할 경우 참가자들을 모두 연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인간띠잇기 행사장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을것입니다"라며 1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범추본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유연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김영진(연세대 2년)군은 "비록 남북인간띠잇기 대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지만 통일을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우리들을 참가치 못하도록 하고 참가하면 연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것이 진정한 허가라고 볼수있는지 의문이 들뿐입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으로 통일을 절실히 바라고 조국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회의 불순분자로 몰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정치성과 비정치성이라는 명분으로 민간통일운동을 분열하려는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과거정권의 통일정책에서 진보된 면이 없다는 항간의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범대회 집행위원장 조성우씨와 인간띠잇기 상임위원장 권호경목사는 각각 대회의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남·북·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화해를 이루기 위해 벌이는 축제입니다" "체제와 사고, 생활방식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설명에서 통일운동의 정치성과 비정치성의 명분은 있을수 없다.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정착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길은 정부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않될것이다. 정부는 창구단일화가 아닌 민과 관이 조화를 이루는 길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상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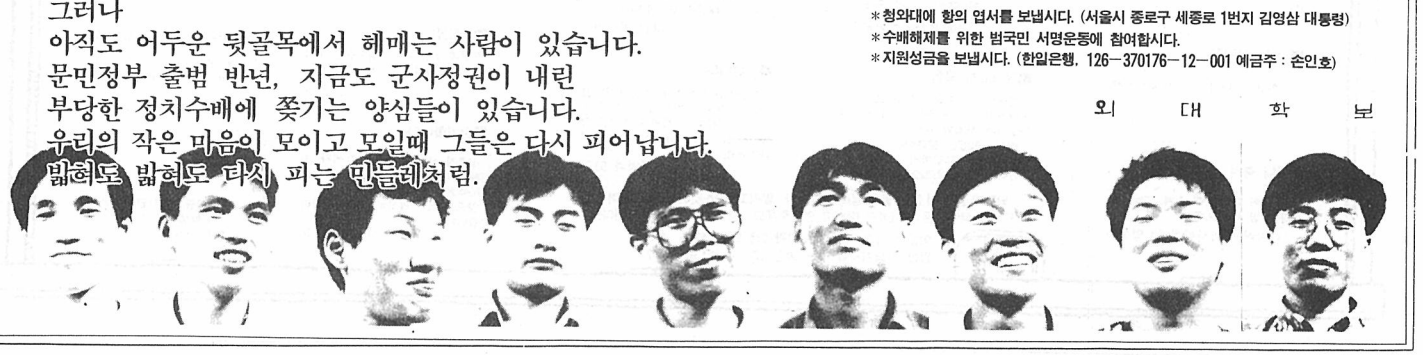
지 명 수 배

93. ○. ○. 문민검찰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개강을 맞은 교정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운 뒷골목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반년, 지금도 군사정권이 내린
부당한 정치수배에 쫓기는 양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이고 모일때 그들은 다시 피어납니다.
밝혀도 밝혀도 다시 피는 민들레처럼.

*청와대에 항의 엽서를 보냅시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김영삼 대통령)
*수배해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지원성금을 보냅시다. (한일은행, 126—370176—12—001 예금주 : 손인호)

외 대 학 보



외대, 그 작은 이야기<첫번째> — 역대학장편(1954~1980)

보도기획

"군사독재하에서도 학원자율은 추구"

학원자율화 추진하던 최학장 사퇴하기도

독재정권, 학원자주 가로막아

제1공화 말엽 학내에서는 차차 [illegible] 대한 이야기가 화제[illegible] 될 것이 보인다.

[illegible] 중앙대학에서 차지하[illegible] 대학에서의 중앙의 지위[illegible] 이[illegible] 그만큼 크다는 것이[illegible].

[illegible] 민주당 승리 선출이[illegible] 앞두고 개교이후 [illegible] 본교의 발자취[illegible] 대학에서의 중앙의 지위[illegible] 간략히 살펴보[illegible] 외대의 발자취를 총[illegible] 세 부분으로 나누어 [illegible] 이번호에서는 첫번째 [illegible] 80년 종학대학 승[illegible] 현실 개입기간을 [illegible] 살펴보[illegible]. <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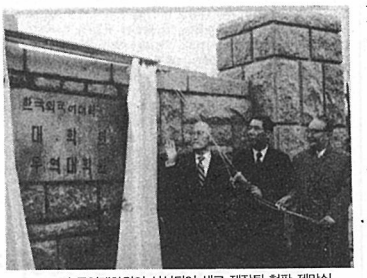
개교 이후 80년까지 26년동안 본교는 독재대학으로서 총장직 없고 학장이 학교를 총괄하는 체제였다. 이 동안 총 6명의 학장이 8번동안 학장직을 역임했다. 건제적인 학원분위기 조성보다 유신정권 등 독재권력에 대한 반대투쟁과 이에 대한 탄압의 탄압으로 휴교, 정학 등으로 얼룩진 이사였다.

독재정권들이 자신의 통치권 [illegible] 위해 총학생회 대신 내[illegible] 학생회를 대신 내[illegible] 개최하는 등 군사[illegible] 강도했다. 교련이라는 [illegible]에 여학생들까지 참여하[illegible] 공식 조련과 사회분위기는 [illegible] 학생들에게 학원자주화[illegible] 운동을 이성향으로 조차 [illegible] 못하게 했다.

[illegible] 개입기간을 살펴보면 정해진 임기가 얼마인지 조차 구분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

박숭음, 최완복 교수가 두번씩 17년, 7년동안 각각 학장직을 맡음으로서 총 26년중 24년간 재임하며 외대발전을 주도했다. 반면 한종원, 권중휘, 조규철 학장 등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었던 60년, 61년, 80년에 각각 취임하여 1년을 넘기지 못했다.

60년 4·19당시(박숭음 학장)에는 학내 문제로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충돌하여 학생이 마대자루에 담겨 한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까지 있었으나 지세한 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숭음 학장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후 사임한 사실은 당시 큰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1972년 무역대학원이 신설되어 새로 제작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박숭음 학장, 김성희 무역대학원장, 정인섭 대학원장.

62년(최완복 학장)에는 시청각교육원과 부전공제가 부활되었으며 6·3투쟁으로 일월군지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65년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총학생회장 직선제가 68년 잠깐 부활, 선거에서 김숭환군이 당선했으나 B학점 미달에 따른 학점제한 조치로 한달만에 당선이 무효가 된 사건도 있었다.

66년 제취임하여 12년동안 재임한 박숭음 학장 시기에는 통역대학원, 각종 연구소가 설립되어 고급인력 양성에 박차를 기했으며 교련반대, 유신반대 시위 등을 격렬히 벌여 휴강일이 강의일수보다 많기도 했다. 휴강, 개강, 또 휴강, 캠퍼스엔 무거운 침묵 이라는 표현이 유신후 사정을 대변하는 이때에 학내에는 유급제와 학도호국단이 부활되고 시국 관련 제적생이 속출했다.

77년 박학장의 정년퇴임후 재취임한 최완복 학장은 캠퍼스 이전을 포괄하는 장기계획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며 2부대학(야간학부)을 신설하기도 했다. 10·26사태이후 한동안 불어닥친 민주화의 바람은 대학사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들은 학원민주화 학생활동자율화를 내걸고 정권에 의해 폐지된 총학생회 대신 학원민주화 추진회 등을 결성하여 학원민주화를 주도했다.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부능, 비양심 교수 퇴진', '학생 지학권 명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로 승격화'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 또한 교수회의의 의결기구 승격화 등 정권과 재단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학원민주화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이 과정에서 최학장은 재단측과 정면 충돌, '자진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보 80년 4월 22일자) 그 후 재단이사회에서는 임기가 10여일 남은 최학장을 해임하고 조규철 교수를 학장으로 선임, 교육부(당시 문교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최학장은 이임사에서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과 해야 할 일을 많이 남겨두고 학교를 떠나게 되 유감"이라는 말을 남긴채 임무를 마무리했다.

이후 취임한 조규철 학장은 4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재임했으며 학장의 바통을 초대 총장까지 연임한 김동선 교수에게 넘겼다.

<임성은 기자>

다음호엔 김동선 초대 총장편이 계속됩니다.

믿는 도끼에 찍힌 후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방중에도 꼭 들어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제학과 [illegible] 이야기다.

[illegible]로 하나 고장고 대[illegible] 빠 믿고 있던 총학생회장 [illegible]'외대사랑 과대표'로 정[illegible]되었다. 그 도끼[illegible] 이사람은 지가 믿던 빼인 [illegible] 것.

[illegible] 사람도 리리고 선[illegible] 상대는 당해서야 외대 발전의 [illegible]라는 어느 세월에 올[illegible].

[illegible] 금융실명제로 [illegible] 오통 시끌벅적한 이때 [illegible] 한복판에서는 때[illegible]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크로니클자 기만히 살펴보니 대회명은 제4차 범민족마라톤대회, 참가선수는 한총련소속 학생선수들과 백골단 선수들, 골인지점은 연세대 인스타디움.

보소, 정부당국 나으리들! 띠잇 기운동은 지원하면서 뭣땀시 범대회는 적극 막는다요. 민초들의 열렬한 통일의지가 안보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4층에 무허가 화장실을 팔걷어 붙히고 바지까지 벗으며(?) 만들던중 안전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통에 귀를 쫑긋 세우니 민취한 한 흡산이 이유없는 반항으로 난간에서 쉬~를 하다 날개없이 추락했다는데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크로니클자 흡산에게 명하노니 물(?) 버리는 일도 중요하나 틀린 하늘아래 뿌리지는 마시암.

○…방학을 보낸 캠퍼스는 세신부가 화장을 하듯 단장은 했으나 여전히 속마음씨는 나쁘다고 해 크로니클자 점점.

새로 들여온 창틀너머로 등지튼 거미줄과 금이 간 벽등이 건재(?)하며 더욱 중요한 공간부족은 여전.

근본적 대책보다 미봉책에 능숙한 학교 나으리들! 흡산 총각들의 안목은 화장은 (反) 자곡동이전행으로 구분한다고.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교정에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흡산들 씁쓸.

사회변혁 외대발전 요구하는 성가신(?) 흡산들을 제거할 좋은 빌미가 생겼다는데, 그것이 학사제적제도.

살인을 하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않은 우리흡산들 전과범처럼 못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제적이라는 낙인으로 사회 낙오자가 되는데 괄쌍끼고 구경만 하시렵니까?

성가신 흡산 제거작전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은

외발위 구성, 외대발전의 결정타

대학당국은 지난 7월 26일자 '외대통신'을 통해 외대발전 2차 5개년 계획의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수립되지 않았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로 구성된 외대 중장기 발전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안을 놓고 학내 제주체들의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발전계획안 도출을 위해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각 부분별로 심층 분석하여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이번 외대발전 2차 중장기발전계획안(발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전에 먼저 작년도 '자곡동 이전'의 구호를 내걸고 21일간의 파업을 진행한 외대발전투쟁의 과정을 다시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도 외대발전 투쟁의 성과로 대학당국과 합의한 합의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이번 계획안이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92년 4월 한창 서울캠퍼스에서 등록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때였다. '외대를 사랑하는 학우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획대자보는 본교 학원자주화 투쟁의 질적비약을 일으키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교육자로서 철학도 없고 돈밖이에만 눈이먼 속없는 재단의 무능, 부정, 부패를 비판하고 자곡동으로의 캠퍼스 이전'이라는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을 외대인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남(서양·노어4)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외대사랑'의 이름으로 출범한 총학생회는 2학기 개강부터 현재단의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입한 재단소유지인 자곡동부근의 땅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주장했다.

21일간 파업, 외대발전 열의 반영

합의서 이행에 주력해야

서울캠퍼스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총학생회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와 지지는 비오는 가운데 노천극장을 가득메운 2학기 정기학생총회를 통해 드러났고 이는 학생들의 그동안 재단의 과행적 학교운영에 대한 분노와 학교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급기야 학생들은 △외대발전위원회 구성 △재단의 예결산 공개 △자곡동(세곡동 포지 포함) 토지 사용용도의 캠퍼스부지 명문화 및 캠퍼스이전을 위한 토지 사용여부확정 등의 핵심사안을 요구했다. 대학당국과 재단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총학생회는 10월 23일 3천 5백여명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21일간의 파업은 학생들에게 재단과 대학당국, 그리고 외대의 제세력간의 힘관계를 꽤틀게 하는 과정이었고 재단전부이사에 대한 퇴진요구까지도 표면화되기도 했다.

결국 11월 11일 총학생회는 대학당국과 7개항에 대한 합의서 조인으로 파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나 합의서 도출과 파업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합의서 내용은 외대발전 위원회 구성을 제외하면 파업전에 논의됐던 내용과 별반 진척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합의서에 대한 대학당국의 실천을 견인할 방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어려운 싸움결과 도출한 합의서에 조인된 외대발전위원회(작성·심의)를 통해 학내 제주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서울학생들 뿐만아니라, 용인 학생들까지 반드시 참여한 자리에서 모든 외대인의 합의과정하에 본교의 발전계획안은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현재 기자>

학생참여, 공개 운영

자치기구 발전위한 과제

대학사회에서는 강의이외에 자치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강의에서 얻을 수 없었던 문예, 예술, 교양, 사회봉사활동 등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몸소 배우는 과정을 자치활동이라 부른다. 현재 대학사회내에 그러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치기구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자치기구들이 계획성이 부족한 실천과 행정적 모순, 재정 지원의 부족, 아울러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미비한 참여로 인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기구를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기구들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실적 방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을 시도하려 한다.

이번호에서는 학생회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그 문제점들 아울러 이후 학생회의 진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교 학생회는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단대학생회 과학생회, 여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학생회 정·부회장과 단대학생회장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매년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0일 까지인데 학생회장이 선출되는 10월이나 11월에서 임기가 시작되는 2월까지 아직 임기가 남았음에도 구임학생회의 활동이 제한당하고 신임학생회의 활동이 공식화 되지 않는 기간이라 약 3개월의 시간은 실질적인 학생회의 다음학기 준비와 그 기간의 학생회 사업에 비효율적인 모습이 지적된다.

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를 주축으로한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세계를 바탕으로 매시업을 집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대학생회장은 편히 운영위원이 되며 유기적으로 여학생회장등 학생회 주요기구 회장이 운영위원으로 포함되고 학생회비의 책정, 예산안 및 결산안 사업을 심의한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뿐만아니라 과회장을 비롯 일반학생들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정기총회 형식으로 1년 2회 실시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안을 숭인하는 회세계이다. 확대운영위원회의는 일반학생들까지 참여하게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과학생회에서 회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깊이있는 교양이 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회의 수익은 교비와 자치회비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비율로 나뉘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정의 활용, 즉 예산안 편성, 결산안 심의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수입내역, 지출내역에 대한 인준은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재정에 대한 감사는 이를 수행하는 회세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본교에서는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재정운영의 보고는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학생회의 사업구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또한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일반학생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도출하기도 한다.

각 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에 유기적 결합을 이루고는 있지만 각 학생회간의 폭넓은 상호이해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재정운영에 대해 일반학생들과 학생회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생회의 사업활동을 지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주상 기자>

학생자치기구에는…(학생회)

비둘기 칠판

■수고했습니다

범민족대회 사수를 위해 2박 3일간 고생하신 이문, 왕산 학생 여러분 수고했어요. 꼭 우리 대에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봅시다.

<통일 비둘기>

이문반

■잘 다녀오세요

미희형, 이태리 연수 잘 다녀오세요.

<타이거 원>

■입대 축하

'우리식 함숙 전대 오빠, 군대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아람어과 시사학회 93 일동>

■빨리 완쾌하세요

방학 중 학생회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송원상학우의 빠른 회복을 빌어요

<착한 비둘기>

■사람을 모집합니다

외대사랑 모임이 92, 93학번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구 성 : 학원 3주체(교수, 교직원, 학생).

하는 일 : 외대환경 가꾸기, 외대인 외대인 답기 운동.

<학생복지위원회>

■야학교사 모집

장애인 야학활동을 하고있는 '동대야간학교'에서 93년도 하반기 야학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 : 힘있는 젊은이는 누구나

기간 : 8월 31일까지

연락처 : 오태영(322-1603)

■사진반 정기 총회

안건 : 회장선거

일시 : 8월 26일

<사진반>

왕산골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친구에 대한 우정을 너무나도 진하게 보여주신 왕산 비대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하얀 비둘기>

■찾습니다

학생회관 2층 The Argus기자실 앞에서 '해외로 가는 길', '슬픈 적도', '독일문화사' 책과 하생증을 습득하신 분은 The Argus기자실로 연락주세요.

<유고어과 91>

■환영합니다

이번에 복학한 89 영어과 학우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9동문회일동>

■축하해요

에국외대 통일왕산 총학생회장 김덕원 선배님이 생일(24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왕산인의 뜻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왕산의 한 학우가>

■모집합니다

풍물패 훈음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훈음>

■환영합니다

정종경(서대 총학생회장)씨와 조민환(정과대 학생회장)씨의 복교를 축하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권위원회>

동문회

(이문)

■부산, 중앙

때 : 8월 27일(금) 늦은 5시

곳 : 분수대

■마포고

때 : 8월 27일(금)

곳 : 광통

회비 : 1만원

■문경, 점촌 향우회 합시다

때 : 8월 25일(토) 늦은 3시

회비 : 4천원+α (신입생 제외)

때 : 8월 27일(금) 늦은 5시 반

(왕산)

■용문

때 : 8월 27일(금) 늦은 5시

곳 : 학생회관 식당

회비 : 맘대로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 왕산 기자실로 무엇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0335)30-4112

'92 후기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8명, 석사 171명 배출

92학년도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과 학사 후기 졸업식이 지난20(금) 거행됐다.

'1992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지난 20일(금)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학원 서반아어과 정혜정양을 비롯한 8명이 박사학위를, 부여대학원 부여학과 베이민군을 비롯한 1백71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부생으로는 입수경(서학·불어4) 양을 비롯한 2백90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학사졸업생 2백90명중에는 후기졸업외 조기졸업자도 12명 포함돼 있다.

이날 이강혁 총장은 축사를 통해 "힘든 학업과정을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며 "앞으로 사회에서도 외대인의 긍지를 가지고 학교 명예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간부 수련회 열려

2학기 계획 수립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학기 전반적인 사업평가와 2학기 학생회일정 및 학원지주화 투쟁 사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간부수련회를 개최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18일(수)부터 2박3일동안 용인플라자리조텔에서 1백여명의 학생회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2학기 주사업으로 △민주총장 선출문제에 대한 입장수립 △외대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과 학교측이 제시한 5개년 안에 대한 분석 △총학생회 정·부 회장 징계·수배조치에 대한 입장 등을 채택하고 각 단위별 분임토론을 가졌다.

한편 용인캠퍼스 간부수련회는 지난 19일(목) 부터 2박 3일 동안 용인캠퍼스 교정에서 1백5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년에 비해 사전준비가 잘이뤄진 이번 간부수련회는 학원지주화에 대한 간부교양, 분임토의, 체육대회 등의 일정으로 원활히 치뤄졌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2학기 주 사업으로 △학련학생회 건설 △외대발전 중장기 5개년 계획안 분석과 학생측안 관철 △후생복지관 건설 등 합의사항 이행 △학생회강화 등을 설정하고 강의와 분임토의를 통해 간부들의 결의를 다졌다.

배병성 무죄석방운동 활발히 진행돼

9월초 법정투쟁, 연대속에 진행해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협의자로 구속된 본교생 배병성(사회·경정 4)군의 무죄석방운동이 '6·12 고 김춘도 순경 사인규명과 배병성학우 무죄석방및 불법·고문수사 근절을 위한 애국외내 학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농촌활동 수행기간인 6월 27일 배군이 영장제시없이 불법연행되자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농활마지막 일정인 경리모꼬지를 취소하고 곧바로 상경하여 서울시 경찰청을 방문해 배군에 대한 불법, 고문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학생들은 배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7월 2일 대책위(위원장 김덕원 총학생회장)를 꾸리고 △배병성 학우의 무죄석방을 위한 모든 법적대응활동 △대학당국·동문회·한총련 등과 각계각층 민주단체와 연대활동 △범국민적 선전활동 등을 다짐했다.

대책위소속 학생 1백여명은 7월 말까지 계속적인 활동으로 서울시내에서 20만장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명동성당 주변에서 배군의 무죄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들로 부터 3만여장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지난 7월 24일 부터 명동성당에서 1백 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배군의 무죄석방을 위한 철야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대책위 정책위원장인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남인호(사회·경정 4)군은 "방중 많은 학우들이 친구에 대한 의리를 기초로 정권의 한총련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권에 대한 탄압에 맞서 힘차게 싸워왔다"며 이후 일정에 대해 "9월 초로 예상되는 병성이의 공판을 대비하여 법정투쟁을 민족민주단체와의 연대속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다.

한편 본교 교무위원회(위원장 이강혁 총장)에서는 즉각적인 회의와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0일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의 의혹점들을 제기했다. 더불어 경찰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반 누리에 정기 사진전 개최

본교 용인 캠퍼스 사진동아리 누리에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총회관에서 제 12회 정기 사진전을 개최했다.

학생회관 4층에서 추락사고 발생

지난 13일(금)새벽 송원상(동양·터어키어4)군이 학생회관 4층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군은 바로 경희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아직껏 의식불명 상태다.

총학생회는 23일(월) 학생들에게 배포한 '외대사랑' 소식지를 통해 송군이 하루빨리 의식회복하길 바란다면서 현재 학생회관의 문제점으로 △안전시설의 미비 △도난분실 방지 △조명시설 보수등 환경개선 등을 지적했다.

서울, 각종 어학 강좌 실시

취업 특강등 학기중에도 계속

서울캠퍼스 학생복지위(이하 학복위)는 방중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어학, 컴퓨터, 운전, 테니스특강을 실시했다.

영어관련 특강 1천8백여명, 일본어 특강 70여명, 컴퓨터 특강 6백 50여명, 테니스 특강 13명등 각종 특강에 학생들이 참여했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는 학생들의 추세에 따라 학복위가 주최하는 특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특강신청 추세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어관련 특강 등 특강에 대한 정확한 인원파악과 평가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학복위는 2학기에 취업특강및 손해사정인 특강, 경제학 특강등 보다 폭넓고 내용깊은 특강을 교육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복지장학금지급과 기타 학내 복지시설마련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위탁 받아 중등교원 연수개최

본교 서울캠퍼스는 영어과 중등교원 특별연수를 교육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하였다.

7월 12일(월) 부터 8월 13일(금) 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영어과 교사 3백 82명이 대상인 이번 행사는 회화, 시청각교육, 영어교수법, 영어교육이론, 교육학이론등 주로 영어과 교사들의 일상수업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교수진으로는 16명의 외국인 교수와 본교 영어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맡았다. 참가 교사들은 이후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서울, 제13회 외화경시대회 실시

제 13회 전국대학생 외국어학력 경시대회가 지난 6월 22일(화) 본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5개부문에 걸쳐 전형된 이행사는 수필, 번역, 회화의 분야를 통하여 창의력, 표현력, 외국어 청취력, 구사력등 종합적인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독어부문에 안영선(서양·독일어4)군, 김요한(서양·독일어4)군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중국어 부문에서 연동숙(동양·중국어3)양이 장려상을, 불어 부문에서는 이향(서양·불어4)양이 최우수상에, 이소영(서양·불어3)양이 우수상에, 영어부문 최우수상에 이소진(사범·불교4)양이, 장려상에 윤지현(서양·영어4)군이 각각 입상했다.

'93하계 전체교수 간담회 열려

교수협의회 총회 총장선출제도 개선방안 모색

'93하계 전체교수간담회와 교수협의회 총회가 지난 19일(목) 용인캠퍼스 교양관 210호실에서 열렸다.

전체교수 간담회에서 발표된 각 부처별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는 1학기와 방학기간에 건물의 도색, 보수, 창틀대체공사 등을 실시했고 학생처는 1학기동안의 학생회 지도상황 보고와 방중 학생회 활동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처는 학사경고제적자 현황, 일반계입학 학생에 대한 원서접수, 하계 계절학기 실시등을 보고했다.

간담회 이후 실시된 제 4기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 3차 교수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93년도 예산안과 평의원 명단 보고가 있었다. 한편 예산안 책정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와 대학당국의 서면접의, 담변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또한 복지위원회는 복지개선 요구안에서 제시했던 17%기본급 인상률에 비해 대학당국과 6%에 타결되었음을 보고했다. 회칙개정위원회는 평위원회에서 제시된 새로운 총장후보선출 제도 확립에 의거 타대학 사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수간담회가 끝난후 교수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민주총장 선출문제를 논의했다.

13기 전대기련 출범 의장 박재철군 옹립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제 12기 총회및 제 13기 출범식이 본교 용인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7월 29(목)부터 7월 31일(토)까지 2박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전국에서 4백여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13기 신임의장으로 본사 편집장 박재철(서학·영어2)군을 옹립했다.

제 4차 범민족 대회 한양대에서 개최

남북 합의서 이행·평화정착 주장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4차 범민족대회가 1만 2천여명의 진정을 동원한 당국의 탄압에 의하여 개최예정지였던 연세대에서 한양대로 장소를 옮겨 열렸다. 이번대회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약 4만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3일(금) 본교 서울캠퍼스 60여명을 비롯한 서총련 학생들은 신촌에서 연대진입을 위한 평화시위를 벌였고, 용인캠퍼스 2백여명의 학생들은 용성총련과 경원대에서 출정식을 갖고 건국대를 거쳐 한양대로 이동했다.

개막예정일이었던 13일 한양대에서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가진 후 '범민족대회 원천봉쇄 규탄과 사수결의 대회'를 열어 당국에게 평화적 대회 보장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평화적 통일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에는 한총련 소속 1만 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연세대로 진입하려는 평화행진을 벌여 연세대에서 정리집회를 가졌다.

범민족대회 이전에 있었던 지역 국토순례단활동(이하 국순단)에서 본교 서울캠퍼스 2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 8일(일) 청량리, 중랑 지역 통일 기원 주민 한마당을 5백여명의 주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고, 합의서 실천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약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낸 바 있다. 또한 용인 캠퍼스 조국통일 위원회는 지난 6일(금)부터 8일(일)까지 용성총련 통일학교를 본교생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고, 용성총련 소속 30여명을 비롯한 경인지역국순단 2백여명은 경기·인천지역을 순회하면서 통일의 의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선전하였다.

범민족연합 성남지역추진본부에서 개최한 통일문화대축전인 '통일 까치아리랑'은 용성총련 소속 학생 5백여명을 비롯한 시민, 학생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졌다.

중앙 국토순례단에는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는 이경수(정과·신방1) 군등 5명의 학생과 용인캠퍼스에서는 입수경대표 등 7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국순단 활동중 본교 서울캠퍼스 강철규(서양·불어1)군이 대전교도소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항의 방문중 연행되어 풀려난 바 있다.

교직원 주요 보직 인사 이동

학생처장 기연수, 총무 부처장 한상경

지난 8월 1일(일)자로 본교에서는 일부 교수와 직원 보직이동이 있었다. 주요 보직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생처장 기연수 교수(노어과, 전 학보 편집인 겸 주간), ▲교육대학원장 정영윤 교수(교육학담당, 전 학생생활연구소장), ▲서양학대학장 심계일 교수(영어과, 전 외국어연수원장), ▲외국어 연수원장 박원탁 교수(터키어과, 전 대학원 아프리카지역 연구학과 주임교수), ▲학보편집인 겸 주간 강덕수 부교수(노어과) 등이 각각 보직발령을 받았다.

직원 보직 이동은 다음과 같다.

▲서울 총무부처장 겸 총무과장 한상경 씨(전 서울 교무부처장 겸 교무과장), ▲서울 교무처 교무과장 이광구 씨(전 서울 총무처 총무과장), ▲서울 총무처 후생과장 이용희 씨(전 신문과장 겸 부주간), ▲신문과장 겸 부주간 임종규 씨(전 서울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과장) 등이 각각 발령을 받았다.

총장, 일본 방문 IAUP 참석차

본교총장 이강혁(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렸던 세계대학총장회의(IAUP)에 참가하였다.

이시람

"자식을 잃어본 부모로서 김춘도순경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물증도 없이 부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 가둔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잃은 부모보다 두배 세배 더 가슴이 아픕니다."

민족의 통일을 희망하면서 '남북청년학생 지배권력 예비회담'을 성사시키기려 뛰던 배병성(사회·경정4)군이 6월 27일(일) 경찰 고향집에서 연행된 이후 몸무게가 9킬로그램이나 빠졌다는 배군의 아버지 배명옥씨의 간곡한 외침이다.

"병성이는 어릴 적부터 친구와 심하게 싸워본 적도 없이 곱게 자란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2단멱치기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아버지옆에 앉아 연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충혈된 눈빛은 아들이 살인자 일 리 없다는 확신이 가득하다.

이렇듯 뒤에서 애태우는 부모의 심정에 더욱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은 경찰의 서체 부검결과의 번복과 용의자가 계속 뒤바뀌는 통의 외혹수사, 배군에게 행해진 불법·고문수사, 그리고 한총련에 대한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배군을 살인자로 확정지은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이다.

"통일운동에서 김춘도 순경, 우리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다시 나와서는 안돼요."

<배병성군 아버지 배명옥씨를 만나>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을 넓히고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한 후진양성의 장 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곳이죠. 정부가 통일에 앞장서지 않을때 젊은이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라며 "다만 통일운동에서 김춘도 순경, 우리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 외대생들이 우리 병성이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병성이로 인해 다른 학생이 다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6·12남북 청년학생 회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모습은 이땅 청년학생들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아버지는 배군을 면회하기위해 서울시 경찰청에 갔을 때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일처럼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에 너무도 감동했다며 도움을 주신 많은 사람들에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잊지 않는다.

부축 수척해진 모습인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퍽 인상적이다.

"만약 다시 태어나면 정치나 무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나무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김인옥 기자>

양캠 보수공사 진행

난방, 창틀, 도색 공사등

양캠퍼스에서는 학내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교체 공사가 하계방학기간중 실시되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사회과학관과 학군단 건물 난방공사, 인문과학관 건물 창틀 교체공사, 도서관연수원대학원 건물 외부도색, 인문과학관 강의실 수강용 의자수리, 학생동아리방 출입문 수리 및 벽 보수, 정구장 재배치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용인캠퍼스의 경우 강의동 도색작업, 신장의동 앞면에 학생용 임시주차장 설치를 실시했다.

서울캠퍼스는 작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서울총학생회와 자곡동이전문제가 아직 완전한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점과 부지 확충없이 구 건물의 보수교체공사만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용인캠퍼스는 '92년 학자 합의 사항인 교통문제증차장 이전문제, 도서관 서적 확충문제 등이 시행되지 않은 채 건물 도색작업, 주차장 부지만이 실행되었다.

추가등록 기간 발표 9월 8일까지

재무처는 2학기 추가등록금 납부기간으로 9월 2일(목) 부터 8일(수)까지를 설정·발표했다.

이는 등록마감일인 지난 21일(토)까지 적지않은 미등록생이 발생하여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제일은행과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등시 수납한다.

본보 6백호 기념공모 시상식 개최

상패와 상금 전달

본보 지령 6백호 발행 기념 공모 시상식이 지난 6월 21일(월) 본관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과 수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 수상작에는 생활글부문 당선 더큰나, 외대의 발전의 김영진(서양·영어3)군, 가작에 로케트를 찾아서의 민병일(서학·유고어2, 휴학)군, 광고부문의 당선 도서관 사서화를 소재로 한 허민영(동학·일본어3)군외 4인, 사진부문의 당선 임유승(인문·사학4)군, 창작가요 부문에 단결가를 작사·작곡한 백재길(상경·경제4)군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다.

두드리십시오.

흡산의 소리
3~7매,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진솔하게 쓰는 란

문예글
시·수필·일기·편지글·꽁트·서평·영화평 연극평·공연평

□원고마감 : 매주 금요일
□학생회관 2층기자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외 대 학 보

□ 기행문－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테 등반기

수직 등반에서 찾은 참 된 자 유

산에는 물, 나무, 돌
아무런 오해도 법이 없어 내 발로 뛸 수 있는 원상 그대로의 자유가 있다.

93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자 머리속은 수직의 등반, 즉 대암벽 등반으로 가득찼다. 짧은 시절 미지의 세계에 도전적인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다보니 어느새 북아메리카 씨에라 네바다 산맥의 대 암벽들을 오르고 있었다.

산의 척도는 바로 높이다. 높은 산은 힘이 있다. 엘켑피탄 암벽은 수직 9백 50여미터에 달하고 수직 높이에 있어 단연 요세미테의 왕지로 군림하고 있다.

장소가 확정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작성되자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대암벽 등반에서는 부엌보다도 지구력과 신체별 부분 근력이 필요하다. 3개월간의 체력단련과 행충의 후배와 동기의 메아리속에 단지 떨어졌다는 부끄럼보다는 국내와 다름없는 똑같은 화강암의 바위인데 요놈의 코 큰 나리의 큰 바위는 왜 곳대가 센지 쌀쌀한 코웃음에 머리끝 한다.

이틀째의 등반을 부사히 마치고 잠자리에서 나눠 마시는 국내에서 준비해 간 고향음료 식혜의 맛은 왜그리 좋던지 서로가 아껴 마시려고 수저로 조금씩 떠올리는 손동작이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듯하다.

등반 셋째날－수직고도 8백여 미터. 이제는 체력보다는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등반이다. 등반 장비를 짐는 손가락에 자꾸 쥐가 난다. 이번엔 장딴지에, 허벅지에…. 이럴줄 알았으면 비상약으로 국내(척)쥐약을 준비해 오는건데 여간 아쉽지가 않다. 선등자를 교대해가며 등반을 해보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쇄약한 탓인지 등반시간이 첫날보다 배로 소요된다. 오늘은 머리에 머리등을 달고 등반하는 야간등반을 감수해야 한다.

등반 마지막 날－수직고도 9백50여 미터. 머리위에서 정상이 어슴프레 보이는 듯하자. 즐음을 쫓는 친구들의 대화가 엉망이다.

"야! 정상이다!"

"아호! 따봉! 따따봉!"

힘들게 정상에 올라온 친구들은 어느 누구라고 할것 없이 부둥켜 안고 개구장이 어린 아이들처럼 신나들한다.

입속 가득히 쏟아지는 단비 사이로 멀리 빙하의 숲을 헤치고 다시 살아온 오늘의 태양은 살며시 고개를 내민다.

홍 윤 기
<서양 · 독일어4>

끊임없는 유혹에도 미친 오름짓 계속

정 서류절차가 완료된 후 요세미테 등반 대원들 모두는 부지개 찾아 봉우리를 넘는 산소년이 되었다.

"그레! 드디어 우리는 떠나는 거야! 뭔가 모험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자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가!"

요세미테 계획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계곡 양옆으로 깍은 듯 서있는 수직고도 천여미터 이상의 절벽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수직고도 9백50여미터를 극복하기엔 4～5일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강력한 태양열때문에 심한 체력소모는 물론 탈수 현상까지 동반한다.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와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적당한 장비의 사용, 적절한 체력안배, 이것이 대암벽등반에 성공할 수 있는 명쾌한 정답이다.

등반 첫째날 수직고도 백여 미터를 오르며 두 번의 추락을 경험했다. 머리카락이 쭈빗서는, 극도로 긴장된 순간을 맞이해야 했다. 오른쪽 손등의 붉은 선홍색 피를 바라보는 내겐 별다른 생각이 없다. "형! 괜찮으세요?"

안부를 묻는 수 십미터 아래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둘째날의 등반은 갈증의 등반이었다. 수직고도 3백여미터 이젠 고도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저 바라다 볼뿐 또 내려다 볼뿐 아무런 느낌이 없다. 강렬한 태양빛은 온통 얼굴을 쌔까맣게 만들어 놓고도 모자라 어깨부분 군데군데 물집이 생길 정도로 화상을 입혀 놓았다.

입술은 말라 비틀어 진데다 아프리카 원주민과도 같이 부어 올랐다. 입천정이 달라붙을 정도로 끈끈한 타액이 늘어붙어 있다.

"해수님의 고행, 갈증음료, 뜨거운 여자, 남태평양, 뭔빙수, 짧은 치마, 비스마르크 외상값, 북극, 남극…"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등반을 포기하라는— 먼발치 아래 경물의 끊임없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미친 오름짓을 계속

산의 척도는 바로 높이다 높은 산은 힘이 있다

□수필－농활을 다녀와서

흙내음 짙어지면 사랑도 짙어지고

신입생으로서 이것저것 배우고 이시람 저시람 만나느라 정신없이 보내던 1학기가 그 마지막을 알릴 즈음, 학생회관 여기저기에는 '93 여름농활을 알리는 크고작은 종이들이 더덕더덕 붙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고등학교시절 그저 대학활동중 하나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농촌활동에 이제 내가 그 일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곳이 내 고향 전주와는 코딸을 곳, 바로 옥구라는 점이 나를 더욱 기대케 했는지 모른다.

농활을 앞둔 나의 이런저런 상상을 덮어버리려는 듯 출발 날짜는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왔고 갖가지 공상에서 깨어남을 때, 나는 이미 한 시골마을의 작은 경호당 백열전등 아래서 여러 사람들과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밤새 모기에게 뜯겨 퉁퉁 부어오른 살갗을 시원한 지하수로 훔쳐내고 마을어른들께 문안인사를 드리고자 마을을 돌아다녔다.

처음 들어서는 마을이라 아직은 낯설은 얼굴들이 주름진 눈썹미를 드러내 보이며 "자들은 뭐하는 아들이다냐?"하며 머쩍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찌리리～잇!"

메미소리와 더불어 시작된 작업은 장난이 아니었다.

일주일 남짓, 밭가락 사이로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진흙에 혐오감(?)을 느끼면, 대지의 열기를 '훅— 훅—' 불어대는 콩밭에 주그려 앉아서, 그리고 사정없이 쏘아대는 여름 햇볕 아래서 쉴새없이 삼짐을 헤대면서 내 상상속에만 깃들어있던 농촌의 허상은 차츰차츰 허물어져 갔다. 대신, 소금기가 일도록 내 몸을 감아 흐르던 땀줄기와 일부러 태운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점붉게 달구어진 살점들이 내 가슴속을 고된 농촌의 현실로 채워넣어 갔다.

하지만, 서로 고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웃음짓는 서로의 얼굴들 속에서 나는 걸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인간미'를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농활기간중 마을분들을 대하며 계속해서 느꼈던 가슴 한 구석의 허전함을 무엇이었을까?

쓸쓸히 논두렁, 밭고랑을 걸어다니시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내가 이전에 어렸을 때 들은 '농부 아저씨'의 모습은 아니었다.

마지막 날, 경로잔치가 되어버린 마을잔치이긴 했지만 우리가 떠날 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그분들과 정을 한층 더 쌓고 그 동안의 피로를 풀 수가 있었다.

장마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농활기간중 비 한 방을 내리지 않더니 막상 떠나는 날에는 우리와 마을분들의 서운함을 담은 차가운 빗줄기가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듯 퍼부었다.

끝나는 순간까지 트럭으로 짐을 옮겨 주시던 마을분들의 사랑을 느끼며 아쉬운 마지막 짐을 내릴었다.

'93 여름농활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진솔한 인간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되새겨 보며 이제, 내년 아니 올 가을에 다시 뵙게 될 어른들과 귀여운 꼬마녀석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 동 혁
<사범 · 독교 1>

파수대

외국인을 위한 통일기초교본

—지난 15일 서울역의 범민족대회 거리 선전전에서 가판대 위의 한 선전물이 돋보인다.

<이훈성 기자>

□수필－국토순례대행진을 마치고

올해 여름은 나에겐 유난히 무더웠던것 같다. 조국통일에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던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93국토순례대행진".

올해 범민족대회의 의의와 중심내용, 통일운동의 과제등에 대하여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통일 열망의 불꽃을 피워 조국통일의 바람을 일으키는게 국토순례단의 임무였다. 그 중에서도 나는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용인 등 경기동부지역을 순례하는 지역국토순례단에 참가하게 되었다.

전국을 순례해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부터 해원성지나가야 한다는 생각과 용인성남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봄에 밭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는 사명감에 더욱 더 큰 결의로 임할 수 있었던 것같다.

우리들의 중점적인 활동내용은 남과북 해외동포의 축제인 범민족대회를 알리는 것과 통일의 욕동지 남북합의서의 실천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었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제미있던 일들도 있었다. 김일성이가 죽지 않는한 통일은 될 수 없다고 우기시던 아저씨.

통일교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시던 아주머니. 학생들이 공부나 할것이지 쓸데없는 짓 한다며 호통치시던 할아버지…

하지만, 결국 더이상 북을 미워하지 말고 남북민족이 하나되어 우리의 힘으로 다음세대에는 통일나라를 안겨주자는 우리들의 내용에 수긍하며 서명하시는 분들의 밝은 표정에서, 통일과 북녘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까지 같은 민족의 핏줄속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통일은 현재 완료형

나는 통일문에선봉대원으로서 주로 서명가판대옆에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통일은 됐어" 그리고 밤늦도록 개사를 한 민요나 기요등을 부르며 율동을 하였다. 시민들은 제미있으신지 걸음을 멈추어 구경을 하셨다.

주로 밝은 노래, 흥겨운 민요를 부르던 주변을 한판의 통일마당을 이루었다. 나중에는 목이 잠겨 용각산을 들려먹으며 통일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했다.

6일에는 용인군민노래자랑에 참가했는데, 아기를 업고 나오신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이 늦도록 자리를 뜨시지 않고 우리들과 힘께 통일노래를 부르며 촛불을 밝힐땐 정말 "통일은 현재완료형"이란 말이 실감되었고, 통일은 이루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남북고위관료도 아니고, 바로 여기있는 하나된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하루이틀 지나면서 부족한 잠과 부실한 식사로 피곤이 쌓여 힘이 들때도 많았지만 시민들의 밝은 표정과 수고한다며 서명지에 심으시는 통일씨앗, 그리고 항상 서로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던 동지들이 옆에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국토순례단 활동을 마치고, 93후배들의 당차고 자신감있는 표정과 밝투에서 뽀얗던 얼굴이 까메진만큼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눈물이 남정도로 보고 싶었던 황산, 그리고 사랑들, 내가 얼마나 황신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았다. 짐머닌 후에 짐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나의 국토순례단활동은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깊이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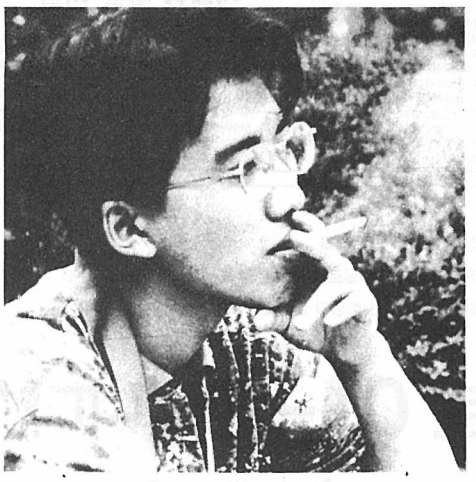
사람에 대한 사랑, 바로 이런 끈끈한 동지애로서 하나된 통일운동 뜸짓을 이틀때만이 더 큰 하나가 될 것이다.

버스안에서 굴리 떨어지면서까지 측던 친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는 우리가 있는 한 95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은 된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나. 이런 내가 우리가 되어 통일을 현실모습으로 다가올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은 경
<서학 · 서반아어2>

외대학보 제50기 수습기자 지원자 모집

93년 봄, 당신은 무얼 찾았습니까



93년 가을,
외대학보가
당신의 공허함을
메꿔드립니다

△대 상 : 93학번
△모집부문 : 일반 · 사진 · 만화기자
△전형방법 : 첫날－자기소개서 쓰기 및 토론
둘째날－면접
△전형일자 : 9월 7일(화)과 8일(수)
△원서마감 : 9월 7일(화)
△장 소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기자실